

청.장년 책별 성경공부

# 누가복음: 위대한 복음

페리 레이시터 (Perry Lassiter)

레이 앤 파워스 (Leigh Ann Powers)

마이크 스미쓰 (Mike Smith)

랜들 에버릿 (Randel Everett)

로니 & 리네이트 후드 (Ronnie and Renate Hood)

BAPTISTWAY PRESS<sup>®</sup>

Dallas, Texas

## 누가복음: 위대한 복음 - BaptistWay 청년 성경공부 인도자 지침서

판권소유 © : 2009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표준새번역, 2001 에서 했습니다.

### BAPTISTWAY 운영위원

주총회(BGCT) 회장 : 랜들 에버릿(Randel Everett)  
제자훈련 / 교육 부장 : 웨인 쉘필드(Chris Liebrum)  
성경공부 / 제자훈련 부장 : 크리스 리브룸(Phil Mill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 한국어 집필위원

에베소서 학습공과 (1 과 ~ 7 과) 번역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8 과 ~ 11 과) 번역  
이재형 (뉴송침례교회)  
골로새서 학습공과 (12 과 ~ 13 과) 번역  
김승시 (한우리침례교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학습공과 (1 과 ~ 13 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침례교회)

###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09 년 9 월

패티 레인(Patty Lane): BGCT 상호문화 사역개발부장  
넬다 P. 윌리엄스(Nelda P. Williams): 커리큘럼 개발부 고문 및 매니저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학습 공과 저자들

**페리 레이시터** 제 1 단원의 1 과에서 4 과를 집필했다. 베일러 대학을 졸업했고 써던뱐티스트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오랫동안 커리큘럼을 제작해온 베테랑이다. 그는 여러 교회에서 임시 목사로서 45년 동안 사역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루이지애나 러스튼에 있는 제일침례교회 회원이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주일학교에서 새가족반을 가르쳤고 지금도 여전히 남자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다.

**레이 앤 파워스** 제 2 단원 5 과에서 7 과를 집필했다. 텍사스 윈터스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회원이며 남편이 담임 목사이다. 그녀는 베일러 대학을 졸업했으며 싸우쓰 웨스턴 신학대학원 M.Div. 과정을 졸업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 히쓰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마이클 스미스** 제 3 단원의 8 과에서 12 과를 썼다. 스미스 박사는 테네시 Mrfreesobor 에 있는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이다. 그는 테네시의 Baptist Convention 와 전국 침례교 연맹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Belmont 대학교의 이사이며 저술과 편집, 그리고 골프를 즐긴다.

**랜들 에버릿** 그는 BGCT 총회장이다. 에버릿 박사는 제 4 단원, 13 과에서 16 과를 썼다. 그는 이전에 텍사스, 알칸사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사역했다. 버지니아 알링톤에 있는 John Leland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를 세운 초대 총장이다. 그는 싸우쓰웨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로니 & 리네이트 후드** 제 5 단원 17 과에서 18 과를 썼다. 로니 W. 후드 박사는 이 교재를 집필할 때 텍사스 Longview 에 있는 펠로우쉽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그는 알라바마 버미행에 소재해 있는 Samford 대학을 졸업했다. 리네이트 비비안 후드는 텍사스 Belton 에 소재한 Mary Hardin-Baylor 대학교의 기독교학 부교수이다. 그녀는 네덜란드에서 의과대학을 수료했다. 그는 그의 남편이 M.Div., Th.M., Ph.D (교회사)를 획득한 뉴올리언스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고, 그녀는 M.Div.와 Ph.D. (성서신학과 헬라어)를 획득했다.

##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무이다. 이 교사용 공과는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최대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각 수업마다, 당신은 성경공부와 준비에 도움을 주는 교사를 위한 **‘성경주해’** 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주해’** 는 ‘성경적 배경이해’ 와 ‘성경해석’ , 그리고 ‘중심 의미’ 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적 배경이해’ 는 공부하게 될 본문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인 본문의 요약을 제공한다. ‘성경해석’ 은 핵심본문의 주석을 한 절마다 제공한다. ‘중심의미’ 는 핵심본문의 의미와 적용을 도와줄 것이다.

각 과의 두 번째 부분은 **‘학습계획’** 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철저한 **‘학습계획’** 을 세웠다.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활동’ 이며, 두 번째는 ‘강의와 질문’ 이다. 당신과 당신의 수업에 가장 잘 맞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 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 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 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 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 누가복음: 위대한 복음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2

단원 1. 예수의 탄생과 어린시절.....8

### 공부할 날짜

제 1 과	_____	오랜 기다림이 끝남.....9 (눅 1:1-25)
제 2 과	_____	소망의 성취를 가져옴.....16 (눅 1:26-56)
제 3 과	_____	구세주의 탄생을 선포함.....22 (눅 2:1-20)
제 4 과	_____	하나님의 뜻에 헌신.....28 (눅 2:21-52)

단원 2. 사역을 위한 준비.....35

제 5 과	_____	당신은 준비되었는가?.....36 (누가복음 3:1-14)
제 6 과	_____	누가 가장 큰 자인가? .....43 (눅 3:15-23a)
제 7 과	_____	시험이 올 때.....50 (눅 4:1-13)

단원 3.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58

제 8 과	_____	오늘 충만한가? .....59 (눅 4:1-21)
-------	-------	--------------------------------

제 9 과	_____	예수님의 강렬한 말씀.....66 (누가복음 4:22-30)
제 10 과	_____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도록 부름받음.....73 (눅 5:1-11)
제 11 과	_____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80 (눅 6:17-46)
제 12 과	_____	용서가 이끄는 곳.....87 (눅 7:36-50)
<u>단원 4. 예루살렘으로의 여정</u> .....94		
제 13 과	_____	좁은 문, 한정된 시간.....95 (눅 13:10-35)
제 14 과	_____	우선순위.....102 (눅 14:1-24)
제 15 과	_____	잔치에 참여 할 것인가?.....109 (눅 15:1-32)
제 16 과	_____	치명적인 실수 .....117 (눅 16:19-31)
<u>단원 5.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u> .....125		
제 17 과	_____	십자가의 죽음 - 우리를 위해서 .....126 (눅 22:14-23:56)
제 18 과	_____	부활하심 - 우리를 위해서 .....134 (눅 24:1-52)

## 단원 1 :

### 예수의 탄생과 어린시절

이번 공부는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린 행사들과 함께 시작한다. 당신은 이 시즌 기간동안에 사용해도 좋다. 이 구절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기가 어느때이든지 간에 당신의 삶 속에 있는 여러 활동들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건성으로 하지 않도록 하라. 오히려 이번 공부를 더욱 깊이 있게 해서 예수의 탄생과 어린시절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누가복음은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진리들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 깊게 조사를 했었다는 것과 이제 그것을 전달하고 있음을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누가는 바울의 오랜 동역자였다.

그다음에 누가는 탄생 예고에 대한 두 개의 이야기를 묘사한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침례 요한의 아버지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나서 두 명이 탄생할 것을 선포한다. 침례요한은 메시아 예수가 올 것을 선포하기 위해 미리 보내심을 받았다.

그다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익숙한 이야기, 천사의 계시와 목자들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했다. 이어서 누가는 예수님의 어리니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 단원 1: 예수의 탄생과 어린시절

제 1과	오랜 기다림이 끝남	눅 1:1-25
제 2과	소망의 성취를 가지고 옴	눅 1:26-56
제 3과	구세주의 탄생을 선포	눅 2:1-20
제 4과	하나님의 뜻에 헌신	눅 2:39-52



<p><b>[제 1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오랜 기다림이 끝남</b></p>
<p><b>핵심본문</b> 눅 1:1-25</p> <p><b>배경</b> 눅 1:1-25</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는 긴 기다림이 끝나기 시작했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p> <p><b>학습목표</b> 천사가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약속한 것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p>

## 들어가기

천사 가브리엘은 늙은 제사장 스가랴에게 나타나서 그와 그의 아내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지만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러한 선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침례 요한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이를 갖고 너무나도 갖고 싶은 한 부부의 목사로서 나는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나는 우리의 둘째 아이가 출생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아이를 더 이상 낳지 말 것을 조언했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입양소에 신청해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다. 나는 그 부부에게 그렇게 입양한 아이가 우리가 직접 낳은 다른 두 아이와 똑같이 느낀다고 말했다. 그 부부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입양소 몇 곳을 알아보아 신청했고 결국 남자 아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일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고 그들의 아이가 그들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기쁨을 같이 나누었다.

비록 그 부부가 스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늙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고대했던 아들을 얻은 일은 놀라운 만족을 가져다 주었다. 아마도 당신, 혹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취된 소망에 대한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당신들의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의 하나님) 갈망을 성취했다.

## **누가, 이야기를 소개하다(1:1-4)**

이야기는 헤롯 대왕의 세속적 세상 속에서 시작한다. 대부분의 다른 종교와 달리 성서적 진리는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난다. 누가복음은 헤롯 대왕이 왕이었던 이스라엘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당시의 역사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가는 독자들에게 자기가 그의 자료를 주의 깊게 조사했으며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누가복음 1:1은 “..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언급한다. 우리는 누가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혹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누가가 마가복음을 접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리고 마태처럼 마가복음을 하나의 프레임, 혹은 아웃라인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학자들은 또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통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여행을 했던 헬라 의사였다고 말한다. 골로새서 4:14 절에서 바울은 누가를 “의사 (doctor, 혹은 physician)” 이라고 언급한다. 성경은 누가의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용하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부분에서 마치 그가 바울의 무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우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행 16:10). 만일 그렇다면 그는 바울과 그외 다른 제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예수의 지상 사역 이후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누가는 아마도 1 세대의 죽음과 함께 그 이야기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정보를 모으기 원했을 것이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같은 시대를 다룬 제 2 편) 모두에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신자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부유하거나 혹은 누가가 글을 쓰는 것을 후원했던 중요한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비록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헬라인이거나 혹은 로마의 관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오직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며 누가가 그를 위해 복음서를 썼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다.

누가는 또한 데오빌로가 지역 교회에 그 책을 회람할 것을 예상했을 것이다. 혹은 아마도 누가는 자기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복사본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시점에서 교회는 누가의 이야기를 읽었고 다른 교회들에 돌려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그룹의 가정 교회들 안에 서로 모여서 대표 한 사람이 이 영감받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아마도 방문자 중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교회를 위해 그 복음서를 복사했을 것이다.

누가가 기록한 책은 복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 시작부터 누가는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사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중의 하나는 독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들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성취되지 않은 갈망들 (1:5-7)**

말라기 이후 400 년 동안, 어떤 예언자도 말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약속한 메시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 대부분의 기대는 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해줄 군사적, 혹은 정치적 리더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날, 한 늙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고 세상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난 상태였다. 그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했지만 아직 그들에게 아이는 없었다. 그들은 포기했을 듯 싶다. 이 부부가 믿음이 깊고, 경건하며, 가난했었다는 것을 주목하라. 누가의 이야기는 헤롯 대왕에서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로

급변하며, 단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야기도 포함시키고 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사회가 종종 소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강조를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평범한 여인들.

스가랴는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최초의 제사장인 아론의 후손이었다. 스가랴의 아내는 남편의 아론 계열에 속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굳건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판복판에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보상이라고 여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볼 때 여자와 그의 남편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 천사의 환상 (1:8-20)

매일 아침, 당일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성전에 모여서 제비를 뽑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제비가 실재로 두 가지의 색깔로 된, 혹은 우림과 둠뭉으로 알려진 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제사장은 그의 예복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것이다. 그는 손을 넣어서 돌 하나를 골랐을 것이다. 그 돌은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답을 주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가 우연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신 것이라고 믿었다.

이때, 그 제비는 어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영광을 갖게 될 것인지를 결정했다. 스가랴가 뽑혔었는데,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다. 분명히 그는 놀랐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들떠 있었다.

그날 스가랴의 임무는 분향단에 있는 재를 청소하고 새로운 분향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그 임무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으며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나이든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 일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는데, 이 날은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깨고 들어오셨는가? 아마도 당신이 교회를 갔는데, 예상치 않은, 그리고 변형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을 것이다.

스가랴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한 천사가 제단 옆에 서있는 것을 보았다. 스가랴는 두려웠다. 그 천사의 첫 말이 비록 “두려워 하지 말아라” (눅 1:13)이었지만 말이다.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존재한다. 그들의 첫 말은 자주,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우는

달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서술된다. 성경적 존재는 더 다룰 수 없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다. 그들은 종종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다. 그 갑작스러움 자체가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천사에 대한 기록의 요소가 경외감을 자극했다. 사실 스가랴가 놀랐다는 것은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다. 그는 공포에 떨어졌다!

그 천사는 그 제사장에게 그의 기도들이 응답되었다고 말했다 (1:13). 분명히 스가랴와 그의 아내는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해 동안 기도를 해왔었다. 그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우리는 종종 만일 주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곧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으로 느낀다. 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를 상기시켜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과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무엇이 당신을 점점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가?

천사는 스가랴에게 설명하기를 그의 아들이 매우 특별한 아이이며 주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가 돌아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라기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다. 스가랴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도록 명령받았다 (눅 1:13). 그 소년은 그의 부모에게 기쁨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기뻐할 것이다 (1:14). 하나님의 성령이 태어날 때부터 그를 채울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의 설교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스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기가 힘들었다. 그는 그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는데 어떻게 천사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천사가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주어서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가브리엘다...”(1:19). 가브리엘은 보통 천사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직접 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는 천사였다. 천사는 그가 다시 재차 말하게 했으므로 스가랴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는 동안 성전 건물 밖에서 예배하기 모인 사람들은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다. 스가랴의 임무는 간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훨씬 빠른 시간에 나왔어야 했다. 그가 드디어 나왔을 때, 그는 손짓을 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가랴를 비롯한 제사장들이 그들의 임무를 완료한 후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가지 않아서 엘리사벳은 임신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녀는 너무나 기뻐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아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를 감당할 것을 이해했는지는 미지수다. 그녀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 결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곧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시 또 다른 아아가 태어날 것을 선포했다.

## 적용 및 실천

1. 하나님께서는 종종 역사의 뒤에서 조용하게 일하신다. 부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다. 하지만 각각의 개념은 새로운 가능성들의 세상을 연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2.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라. 고등학교에서 나는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나는 그 목록에 있었던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증거를 보았다. 그 목록은 어린 사람, 노인, 유대인들, 비관주의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3. 매일의 성전 봉사는 제비로 뽑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뒤에 계셨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우연도 없으며 모든 경우들은 성령의 인증이라고 느낀다.
4. 기뻐하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액 주신 것을 기뻐하도록 해야한다!

## 질문

1. 내가 최근에 집필했던 성경 공부 교재를 읽었던 나의 아내는 내가 독자들에게 제시한 질문이었던 “당신이 현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다음 결정들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문했다. 그녀는 나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깊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것과는 반대로 비슷한 질문을 하기 원한다: 당신은 어떤 주요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는가?

2.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자. 당신은 하나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당신은 나태에 빠져 있는 것인가?

3.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참지 못하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까지 당신의 삶 속에서 지체하고 있는가?

4. 얼마나 빨리 당신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는 않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가? 당신은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는가?

## [참고]

### 가브리엘

유대인의 전통에 세 천사가 있다: 미가엘, 가브리엘, 그리고 라파엘. 처음 두 천사는 성경에 나온다 (가브리엘, 눅 1:19; 미가엘, 계 12:7). 천사라는 단어는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천사들은 보통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 메시지는 수신자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누가복음의 처음 두 장에서 가브리엘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탄생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 적용

- 개인 기도 목록을 만들어라. 당신이 아는 사람들과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라. 매일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체크(√)를 하라.
- 당신의 인생에 대해 묵상하라.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번 주에 다른 사람과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하라.
-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당신은 또한 끝까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발을 들여놓는가?

<p><b>[제 2 과]</b></p>	<p><b>소망의 성취를 가져옴</b></p>
<p><b>핵심본문</b> 눅 1:26-56</p> <p><b>배경</b> 눅 1:26-80</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적으로 약속했던 그 아이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가져오셨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 원하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불가능하게 보이는 아이의 탄생을 약속한 것을 통해 삶에 가져다 준 복들을 파악한다.</p>

## 들어가기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기적의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을 선포했다.



아이가 곧 탄생하는 것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결혼 후 6개월이 되어서 성탄절이 다가올 즈음에 아이가 출산할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외출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작은 갓난아기용 신발을 사서 나무에 걸어 놓았다. 놀랍게도 (나에게는) 우리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신발은 너무나 컸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나는 나의 4달 된 아이를 위해서 그 나무 아래 작은 축구공을 놓았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는 주변의 흥분을 기억하라.

##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선포하다 (11:26-38)

우리는 쉽게 마리아가 흥분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결국 그녀는 정혼한 상태였고 그 해에 요셉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녀의 부모가 요셉의 부모와 함께 아마도 수년 전에 그 결혼을 성사시킨 것 같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공식적으로 정혼한 상태였다, 즉 신랑이 결혼을 위한 값을 지불했고 그녀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였다. 정혼을 깨기 위해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보통 결혼식은 정혼 후 약 1년 뒤에 거행되었다. 일주일 걸리는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그 부부는 각각 떨어져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

당시에 결혼한 부부는 성인으로 취급되었다. 소년들은 12살, 혹은 13살 즈음에 남자로 인정되었고 그들의 아버지, 혹은 다른 남자로부터 일을 배웠다. 요셉은 아마도 견습 목공이었을 것이다. 마리아는 약 13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결혼을 기다리는 소녀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당시의 (그리고 그 후에도) 유대 소녀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를 잉태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마리아로서는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했던 날,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그녀와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그 일로 온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 천사는 먼저 그녀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라고 인사한 뒤 그녀에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눅 1:28). 그의 인사는 그녀를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그 천사는 그녀에게 두려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면서 그녀를 진정시켰다.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설명하기를 그녀가 잉태하여 남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짓도록 명령 받았다. 그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는 (참고 “이름 예수” 를 참조하라)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그녀의 아들의 사명은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거부했다. 그녀는 사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1:34) 라고 질문했다. 가브리엘은 대답하기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다 (1:35).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녀의 친척 엘리사벳도 역시 기적으로 잉태했다고 말해 주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임신한지 6개월이 된 상태였다. 천사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1:37).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답하였고 기꺼이 그 천사의 메시지에 순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가 그녀의 결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소녀임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의향을 보여주었다.

### **마리아, 엘리사벳을 방문하다 (1:39-45)**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마리아는 이 새로운 경험에 거의 압도 당했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느낌을 나누기 위해서 그녀의 친척을 찾아갔다. 엘리사벳은 그녀의 어린 친척을 커다란 기쁨으로 맞이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녀에게 인사를 하자 마자, 그녀의 태 중에 있는 아이가 뛰어 놀았음을 말해주었다 (1:44).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렀고 (1:45) 그녀가 방문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진실로, 그녀는 “내 주님의 어머니” (1:43)로 그녀에게 존경심을 나타냈다. 엘리사벳은 분명 그녀가 처음 잉태한 날로부터 통찰력을 얻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처음으로 새로운 경외감을 보인다고 생각했었다.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이야기가 실현되었을 때, 엘리사벳은 그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마리아가 이 땅에서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믿는 마리아의 믿음과 신실함을 인식하고 나누면서 마리아를 더욱 축복 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마리아의 노래 (1:46-56)

마리아는 이어서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혹은 그냥 말했을 수도 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높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그녀의 “구주(savior)” 라고 불렀다,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녀의 “비천함” 을 기억해주셨다는 것을 언급했다 (1:48). 그녀는 자신이 그러한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그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마리아의 생각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의 백성들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특히 그녀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에 눈을 돌렸다.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녀를 강력하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평범한 소녀에게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며 경외감 가운데 빠져 있었다.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강한 팔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셨다. 그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역사 하셨고, 역사 하신다. 그녀는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찬양했다. 누가복음이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 어려운 자들의 필요를 조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하라.

마리아는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녀의 주님을 연결시켰다 (1:55). 그녀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자신을 집어 넣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몇 달을 더 유한 뒤에 집으로 돌아갔다.

## 침례 요한의 출생 (1:57-80)

배경이 되는 말씀이 1장 끝까지 계속되고 침례 요한의 출생을 묘사한다. 성서는 그 가족과 이웃들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으려고 했으나 엘리사벳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했다는 것을 기록한다 (1:58-60). 요한이라는 성을 가진 자가 가족 중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가랴를 재촉해서 그의 생각이 어떤지 물었다. 그는 종이를 달라고 해서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썼다 (1:63). 스가랴가 이렇게 하자 마자, 그는 다시 말할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적용 및 실천

동정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다. 우리는 그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언급하였다. 이것을 균형있게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다. 당신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의 이러한 개입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 질문

1. 지난 주 우리는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해보자.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2. 소녀였던 마리아는 나이가 훨씬 많았던 엘리사벳을 만나려고 했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교회에서 서로 다른 세대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류와 의사소통이 있는가?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친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누가복음에서 이 장은 몇 개의 노래들과 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믿음과 경험들에 대한 놀라움과 흥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 [참고]

###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신약성경 (Iesous)에서 라틴어 (Iesus)를 거쳐서 영어 (Jesus)로, 그리고 한글은 헬라어 음역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은 히브리어 이름인 여호수아 (Joshua) 혹은 예수아 (Yeshua)로부터 번역된 것이다. 거의 확실하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예수아, 혹은 요수아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서 다양한 파생어들이 등장한다. 가장 유명한 이름은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이다. 그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 이외의 다른 자료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 이름은 주님이 구원하신다이고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예수님께 주어진 의미이다 (눅 1:26-31; 마 1:21 참조).

### 이번 강의 적용

- 하나님을 기대하라
-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
- 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 하나님을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구세주의 탄생을 선포함</b></p>
<p style="text-align: center;"><b>핵심본문</b> 눅 2:1-20</p> <p style="text-align: center;"><b>배경</b> 눅 21-20</p>	<p><b>학습주제:</b> 하나님의 약속은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서 이루어졌다.</p> <p><b>탐구질문:</b> 구세주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p> <p><b>학습목표:</b> 오늘날 구세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선포하는 것의 의미를 요약할 줄 안다.</p>

## 들어가기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그녀의 첫 아이를 낳았다. 들판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의 무리에 그 탄생을 알렸고, 그들은 곧바로 아이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은 성탄절 아침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나의 아내와 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집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갔다. 그때 이후 우리는 그 전통에 변화를 주었다. 가장 최근에 우리는 친척들 모임, 약 20명이 성탄절 노래를 두 세 곡 같이 불렀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비슷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한 번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 호적 등록 (2:1-5)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움직이신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끄셔서 거기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도록 하셨다.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왕좌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왕상 2:4; 8:25).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왕을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 시켜줄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있었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족이 살았던 동네이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다윗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가는 영원한 통치자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었다 (미 5:2).

시아저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황제였다. 그는 알려진 대부분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신으로 추앙되었다. 헤롯은 아우구스투스를 섬기고 있었고, 유대와 그 주변 일부를 다스리는 왕이었다. 그는 A.D. 4년에 죽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관대하게 대했을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었다. 헤롯은 말년에 그의 친척들이 왕좌를 노리고 음모술수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는 의심이 많아졌고 잔인해져서 그의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구레뇨가 시리아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인구조사였다 (눅 2:2). 이 호적등록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특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호적등록에 대해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등록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 부부는 약 85 마일을 여행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가장 빠른 길로 갔을 경우). 분명히 그 여행은 임신 중인 마리아에게는 매우 힘든 여행이었을 것이다.

## 탄생 (2:6-7)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했다. 그는 엘리자벳과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많은 말로 설명했다. 그는 여인들과 스가랴 모두들의 반응에 대해서 썼다. 이제 누가는 아름다운 언어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을 기록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놓았다. “첫 아들”은 마리아가 후에 아이를 더 낳았다는 것을 내포하며, 성경은 예수의 형제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녀는 그 신생아를 포대기에 싸았다. 구유는 동물들의 먹이를 먹이는 통이었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대상숙소에 있었다고 믿는다. 이는 마치 캠프를 치는 땅에 벽이나 울타리가 쳐진 곳이었다. 이 안에서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머무르고 동물들을- 말, 나귀, 그리고 낙타 - 돌보았다. 그 장소는 인구조사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이며, 마리아와 요셉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아이를 낳았을 것이다. 그 여관은 이미 꽉 차 있었다.

아마도 당신은 여관에 빈 방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설교자는 보통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가 들어올 곳이 있는 지 질문하곤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포인트는 예수께서 어쨌든 태어났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막거나 멈추게 할 수는 없다.

## 목자들과 천사들 (2:8-20)

목자들은 팔레스틴에서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누가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구세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는 조심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목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다. 목자들은 먼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씻는 정결의 식을 거치지 않으면 성전애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직접 일하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보내셨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신분은 없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의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들판에 있었을 것이다. 갑자기 밤 하늘이 열리며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천사는 이름을 모르지만 “주님의 한 천사” 였다 (2:9). 그러한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자주 나온다.



주님의 영광은 묘사되지 않지만 우리는 찬란하고 광명한 거룩의 영기를 상상할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 주님의 영광은 종종 성막, 혹은 성전에 나타난다. 주님은 그 목초지를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키셨다.

천사가 나타날 때 보통 그렇듯이 그것을 경험했던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역시 보통 그렇듯이 천사의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었다 (2:10).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복음(기쁜 소식)의 기초이다. 어떤 면에서 그 하늘에서 온 방문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구세주가 다윗의 성 근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언덕에서 내려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주의 천사는 지금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유한 자들과 권세있는 자들은 종종 복음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복음은 그 아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천사와 함께 했다. 그들의 노래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노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연결된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 가 임한다. 그 천사는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 주었고, “구유에 누어 있는 것”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표징이었다 (2:12).

목자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 천사가 떠나자 그들더 역시 서둘러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이와 그 부모를 찾았다.

당신은 성탄절 시즌 동안에 모든 곳에서 목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목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 상상해보라. 또한 그들이 아이에게 경배하고 떠난 뒤에 바로 그들의 일터인 양떼 있는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흠어져서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들이 처음 복음전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천사 이후). 아마도 그 마을은 새벽이 되어가고 있었을 것이고 목자들은 그들의 집으로 달려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해주었다.

## 적용 및 실천

1. 성탄절에 우리는 많은 곳에서 - 집, 교회, 성탄절 카드, 가게 등 - 구유가 놓여 있는 장면을 본다. 그 장면의 중심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와 그의 부모들이다. 그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며 최초의 연합체이다. 가정들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한 가정으로서, 혹은 한 교회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한 가정에 맡기셨고, 그 가정을 거룩하게 하셨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성서는 예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반복해주고 있다. 목자들과 양떼들을 소유한 사람들, 혹은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노동자 계층에서 태어났으며 일하고 있는 남자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왔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3.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는 우리 인간의 삶을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완전히 똑같이 경험하셨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때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여기에 계속 계셨고 우리를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 질문

1. 성탄절에 당신 자신과 당신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라.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한 인간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3. 하나님의 메시아이시자 아들이신 구세주의 오심에 대해서 당신은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 [참고]

## 구세주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구출해내는 구세주이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메시아 예수를 통해 구세주로 역사하신다. 예수는 또한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온 세상 사람들의 구세주이시다. 구세주라는 단어는 또한 치료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몸의 치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완전체를 치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다. 두 단어 모두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구약성서에서 그 단어는 왕과 때로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된다. 후기에 구약성서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구원자로서 다윗의 왕조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언급된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군사적 승리와 왕좌를 기대했었다. 예수님의 사명 중의 하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 주

‘주’ 라는 단어는 단순히 선생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배경은 힘과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YHWH 혹은 Yahweh), 하지만 그 대신에 히브리어로 아도나이(adonai)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주님(Lord)라는 의미이다. 목자들에게 말한 천사는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분명히 ‘주’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p><b>[제 4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나님의 뜻에 헌신</b></p>
<p><b>핵심본문</b> 눅 2:39-52</p> <p><b>배경</b> 눅 2:21-52</p>	<p><b>학습주제</b> 성전에서 예수님의 어린시절에 있었던 일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르신다.</p> <p><b>탐구질문</b>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는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의 12 살 어린시절에 성전에서 있었던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당신의 헌신도를 평가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 12살 때, 그는 부모와 함께 성전에 가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을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예수를 발견했다.

나의 아들 중의 하나가 약 6살쯤 되었을 때, 그는 길을 잃고 헤맨적이 있다. 나는 아들이 선교 교육을 위한 교회 학교 모임 이후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다. 그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점점 걱정이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 중의 한 명이 내 아들이 다운타운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태워주려고 했지만 차에 타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는 것이다 (그는 원가를 배웠다!).

나는 차를 타고 아들을 찾기 시작했다. 나는 교회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불쌍한 것! 그는 어떤 이유로 버스를 놓쳤고, 비록 교회가 몇 블록 안되는 거리에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 **배경 말씀: 예수님의 첫번째 성전 방문 (2:21-38)**

누가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자주 강조한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8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다. 그 이유는 성전 안에서 할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였다.

성전에 다다랐을 때, 그 가족은 두 명의 노인 시므온과 안나를 만났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는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예수를 보는 순간 시므온은 그의 팔에 예수를 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를 보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84살 된 안나는 예언자였는데, 역시 어린 예수를 안고 축복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 **자라는 소년 (2:39-40)**

할례 의식을 마친 후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른이 되기까지 사셨다. 그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목공 기술을 배웠다. 동네 회당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공부했다. 그는 또한 거리와 들판에서 어린아이들처럼 놀았다.

누가복음은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집에서 그가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언급한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그가 목공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도왔을 것이다. 아마도 그분은 다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차게 뛰고 달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또한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셨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다” (빌 2:7). 당신은 예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산수나 다른 과목을 배울 때 어려웠던 경험들을 가지셨을까 궁금해본 적이 있는가? 그는 분명히 구약성서를 주의깊게 공부했다. 성인이 되어서 그는 그것을 자유롭게 쉽게 인용하셨다. 하지만 ‘지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것을 아는 정도를 넘어선 이해력과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 의미를 소화하고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눅 2:40 절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두 개의 공백 중 하나이다. 그 구절은 대략 12년을 요약하는 말씀이다. 다음 이야기 뒤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아마도 대략 18년의 공백기간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가셨다는 것을 다시 주목하라. 그는 성전 안에서 배우고 질문하면서 그 지혜를 나타내셨다.

## 또 한번의 성전 방문 (2:41-52)

마리아와 요셉은 경건한 부부였으므로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될 수 있는 한 성전을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께서 열 두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85 마일 되는 여행 길에 그를 데리고 갔다, 이는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다. 이 절기는 이집트에서 해방된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였다. 출애굽은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이다. 몇몇 시편은 당시의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에 대한 이 위대한 승리를 노래한다 (시 78:12-55; 106:7-33를 참조).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죽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각 집은 그냥 지나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날 밤 장자들이 모두 죽었다. 열가지 재앙 이후 이 끔찍한 재앙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나가게 했다. 유월절은 삼대절기 중의 하나로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역사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절기이다. 모든 남자 유대인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년 이 절기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야한다. 심지어 오늘날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각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소망과 함께 선서를 한다.

유월절이 끝난 후 그 가족은 짐을 챙겨서 다시 집으로 발길을 향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 하룻길을 걸어간 후 (약 15 마일) 예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군중 가운데 섞여서 친구, 혹은 친척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이 부분에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그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피할 수 있었었는지 토론한다. 나는 때때로 그러한 주석을 다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았는지 궁금하다. 어린 소년들은 그들이 아무리 당신 눈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도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없어지곤 한다! 예수께서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없어지셨다. 그는 학교에 갔었던 것이다!

마침내 예수님의 부모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여전히 성전에 있었다. 그는 여러 선생들을 발견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묻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소년 예수가 이 유대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성서는 단순히 그가 듣고 질문했다고 말하고 있다. 아마도 소년 예수는 모세아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 것이다. 소년 예수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인해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이 소년이 지혜와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20년 뒤에 가르칠 것을 위해 그 기초를 쌓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의 부모는 깜짝 놀랐고 그 감정을 역력하게 드러냈다. 그들의 안도감과 분노는 그들이 예수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돌아다녔다고 말하는 가운데서 쏟아졌다. 그들은 걱정 가운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예수는 오직 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했다.

눅 2:51 절은 이 이야기의 절정이다. 예수께서는 그가 이미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록 예수님은 그의 지상의 아버지를 공경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 헌신했다.

예수님은 거의 성인이 되는 연령이었다. 열 세살은 소년이 청년으로 간주되는 보통 나이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에 온전히 몰두하셨던 성인의 나이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의 부모와 함께 성전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소년 예수가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말해준다. 우리는 오늘날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부모를 공경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은 아니지만 누가는 마리아가 이러한 일들, 대화들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51; 2:19). 성경은 다시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으며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린시절에 대한 유일한 성경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는 소년으로서 예수는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적용 및 실천

1.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했다. 그의 남은 생애는 특히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에 완전히 헌신했다. 나는 11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 뜻은 그 이후 나의 삶을 이끌어 왔다. 나는 많은 것들을 의심해 왔고, 때때로 방황했었지만, 나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하시도록 하신다는 지식이 있었다. 당신은 그러한 뜻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단지 교회 목회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 그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계획이 있고, 인생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 때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인인 당신을 향한 또 하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8 살 때부터 그의 생애 마지막 까지 예수께서는 성전과 회당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당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일 수 있다.

3. 어린이들은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결정들을 하게 된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다. 그들은 그리고나서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로 성장해야 한다.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4. 우리는 또한 성서가 가정에 주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3과는 가족을 묘사할 때 구유를 언급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의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인으로 자라는 것을 돕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의 부모를 공경했고 순종했다.

## 질문

1. 어떤 원리가 당신의 인생을 이끄는가? 당신은 주로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에 성공하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주력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힘을 주고 이끌어주는 엔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오고 있는가?
2. 당신의 인생 중 하나님을 경험한 큰 사건은 무엇인가? 그 결과가 당신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3.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의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데리고 오는 책임을 수행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에 어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4. 당신의 교회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가?

## [참고]

### 예수님 생애의 장소들

**베들레헨:** 베들레헨은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는 위대한 왕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예루살렘:** 이 도시의 중요성을 당시의 이방인들과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성전은 아브라함의 매장지 위에 세워졌다고 믿는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초석이자 이스라엘의 최고 조상이다. 성전과 그 내부의 지성소는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장소로 간주되었었다. 그곳에서 위대한 희생제사들이 인간이 지은 죄악들을 위해 드러졌고, 절기들이 지켜졌다.

나사렛: 이 곳은 작은 마을이었다.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훨씬 큰 로마의 도시인 세포리스가 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세포리스와 가버나움 모두를 알고 계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작은 농촌이었던 그곳에서 자라셨다. 그는 그 길거리와 들판에서 어린시절을 보내셨다. 또한 그 마을의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는 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알았을 것이며 그 마을 사람들도 그를 알았을 것이다.

##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

-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 혹은 은사는 무엇인가?
-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관심들을 갖게 하셨는가?
- \* 당신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지역사회에서, 세상에서..
- \* 어떤 문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는가?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필요가 가까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가?

## 단원 2:

### 사역을 위한 준비

많은 성경 번역학자들은 이 책들은 또한 역대지 상,하 를 포함하는 더욱 큰 묶음으로 속할 수 예수 탄생에 대한 흥분된 이야기 뒤에 누가복음은 예수의 대부분의 어린시절을 지나친 뒤, 요한의 사역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이 단원의 과들은 준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요한의 사역은 백성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일을 도왔다. 또한 예수님의 준비의 기간이었다. 예수의 침례와 시험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는 것을 확증했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그의 3년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셨다.

기쁨이 이 과들 전체에 스며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눅 3:1-14), 에서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을 체험하도록 선포한다. “누가 큰 자인가?” (눅 3:15-23a)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에게 오는 기쁨을 상기시켜 준다.

“시험이 올 때” (눅 4:1-13)는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예상케 하고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따라야 할 패턴을 보여준다.

#### 단원 2. 사역을 위한 준비

제 5 과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눅 3:1-14
제 6 과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눅 3:15-23a
제 7 과	시험이 올 때	눅 4:1-13

<p><b>[제 5 과]</b></p>	<p><b>당신은 준비되었는가?</b></p>
<p><b>핵심본문</b> 누가복음 3:1-14</p> <p><b>배경</b> 누가복음 3:1-14</p>	<p><b>학습주제</b>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비도덕적 행동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요청한다.</p> <p><b>탐구질문</b> 나와 같은 사람이 회개가 정말 필요한 것일까?</p> <p><b>학습목표</b> 비도덕적인 행동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으로써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파악한다.</p>

## 들어가기

요한은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처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청중들처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길을 준비해준다.

찰스 콜슨 (Charles Colson)은 그의 자서전 거듭남 에서 그가 어떻게 회개가 필요한지를 깨달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리차드 닉슨의 최고 참모였던 콜슨은 1972년 워터 게이트 사건을 음모했던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다.

혼란 가운데서 콜슨은 당시 Raytheon 회장이었던 톰 필립스 (Tom Phillips)를 만났다. 필립스가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그가 필립스에서 보았던 변화에 흥미를 느낀 콜슨은 그를 보고 싶어했다. 필립스는 그와 함께 복음을 나누었고 그에게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를 읽어주었다. 복음 앞에 부딪힌 콜슨은 자기 자신이 교만하고 뻔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콜슨은 얼마나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는지를 나누었다. 닉슨 대통령의 최고 참모가 되었을 때는 교만이 극에 달했다. 회개가 필요했다. 대화가 좀 더 진행된 이후, 콜슨은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했다.

콜슨의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드러났다. 그는 부인해 왔던 어떠한 잘못들도 법정 앞에서 시인했다. 그는 결국 워터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형벌을 지고 수감생활을 했다. 출감된 후 콜슨은 Prison Fellowship 을 세워서 교도소 전도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콜슨은 그의 변화된 행동으로 그의 참된 회개를 드러냈다. 비슷하게 침례 요한은 그의 청중들에게 회개하고 그들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도덕적인 행동으로부터 돌아서야만 한다.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3:1-2)**

누가는 몇몇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거명하면서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지도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몇 명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후에 재판을 받으시는 기간에 유대인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서게 된다 (눅 23:1-25; 요 18:13, 24).

이 지도자들의 목록은 요한의 사역 시기를 알려 줌과 동시에 다른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적, 국가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들은 누가의 주요 주제들 가운데 하나를 강조해주고 있다: 예수께서는 온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황제인 티베리우스 시이저를

포함시킴으로써 누가는 그가 어떻게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기했다.

누가가 기록한 지도자 목록은 또한 요한을 예언자로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구약 성경은 많은 예언자들을 당대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사역 시기를 언급함으로써 소개한다.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는 구약 성경의 형식이 메아리 치는 듯 하다 (렘 1:1-3; 호 1:1; 스 1:1을 참조하라).

### 준비 (3:3-6)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그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주었다 (3:3). 요한은 7-14 절에서 그의 메시지를 상세하게 말했다.

성서적인 회개는 마음과 회개의 변화가 연루된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변명을 멈추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회개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요한은 이 회개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침례”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담그는 것, 혹은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침례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특별한 것이었다. 구약 성경에서 정결 의식은 죄와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했다 (레 16:4, 24). 후에 유대 저자들은 유대교로 들어오는 의식으로 침례 의식으로 묘사했다. 아직 요한의 시대에는 이것이 행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요한의 참된 회개의 열매의 맺고 침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용서는 침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한 심령 속에서 오는 것이다.

누가는 이사야 40 장을 인용했는데, 이는 왕을 위해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다지는 고대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특히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4-6 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하나님의 도래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퍼뜨려질 구원을 위해 한 길을 준비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를 보내심으로써 세상을 영원토록 변화시키실 무엇인가를 하고 계셨다. 예수께서는 교만하고 힘있는 자를 선택하시지 않고 겸손하고 회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될 때는 우리들을 부르신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올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회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고 있는 죄를 제거해준다. 시편 66:18 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장벽들을 제거하신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다.

6 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그리고 그의 연속된 서신인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누가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아무도 구원의 약속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시킬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 지에 대한 놀라운 예들로 가득차 있다. 히스기야와 느헤미야 지도 아래서의 부흥은 단지 두 가지 예에 불과하다. 역사는 또한 위대한 부흥의 시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3:7-14)**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 둘 모두가 요구되는 것이다. 요한은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외쳤다. 요한은 덩불의 불을 피해 도망가는 뱀들로 군중들을 비유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눅 3:7). 요한은 청중들의 동기를 동전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3:8).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요한은 사람의 혈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형성을 위해 필요했다. 군중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름으로써 요한은 그들이 결핍된 회개가 그들의 참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요한의 말이 지나치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파멸적인 힘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서기를 갈망하신다.

요한은 그의 청중들에게 회개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을 가져왔지만 또한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가져왔다. 도끼와 불의 이미지는 구약 성경 (창 19:24; 사 10:34)에서 나타나는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요한은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다. 이는 그들의 회개를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다.

군중은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눅 3:10). 이는 그들이 요한의 말을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을 갈망하게 하신다. 요한의 대답은 회개에 대한 또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었다. 회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관대한 행동과 동정심은 변화된 마음의 두 가지 증거이다. 요한은 군중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3:11)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복들을 나누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그것이 죄이다. 회개한 마음은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드러난다.

회개의 진정성을 증명할 필요는 세금 징수자와 군병들과 요한의 대화를 통해 다시 강조된다 (3:12-13). 요한은 세금 징수자에게 징수하도록 명령 받은 이상의 세금을 더 이상 걷지 말도록 가르쳤다.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렸다. 세금 징수자들은 정부에 바쳐야 할 세금에 더해서 개인적인 노동 댓가를 징수할 수 있었다. 그 부수적인 징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도는 거의 항상 남용되었다. 많은 세금 징수자들은 개인적인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했던 군병들은 로마 군병들이 아니라 헤롯 아그립바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유대 병사들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세금 징수자들을 보호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 세금 징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 군병들에게 그들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대신에 그는 그들이 그들의 수당으로 만족하라고 했다. 잘못된 갈망은 잘못된 행동을 이끈다. 회개는 또한 비도덕적 행동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탐욕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은 범하는 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도 회개하도록 했다. 권력의 남용은 죄이다, 하지만 굳은 마음과 동정심이 없는 것도 역시 죄인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는 어떤 것도 죄를 짓는 것이지만 또한 옳은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를 짓는 것이다 (약 4:17).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죄이다.

## 적용 및 실천

회개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회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때때로 교만이 가로막기도 하고, 그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굳은 마음, 이기주의, 그리고 무정함은 권력을 남용하고, 도적질하고, 횡령이 죄인 것처럼 역시 죄를 짓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태도와 행동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를 드러낸다.

## 질문

1. 죄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나님과는?
2. 당신은 누구에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3. 육체적, 혹은 영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있는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당신은 당신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가?
4. 당신의 어떤 삶의 영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5.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당신이 회개했던 때를 생각해보라. 회개한 후 당신 삶의 어떤 영역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 [참고]

### 회개의 과정:

1.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라. 당신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라. 변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더 이상 당신 자신을 합리화 시키지 말라.
2.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어놓았다는 것을 인식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
3.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라. 계속해서 당신이 옛 습관대로 살지 않기 위해 변화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라. 만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라.

<p><b>[제 6 과]</b></p>	<p><b>누가 가장 큰 자인가?</b></p>
<p><b>핵심본문</b> 눅 3:15-23a</p> <p><b>배경</b> 눅 3:15-23a</p>	<p><b>학습주제</b>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성취했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주권에 헌신하도록 요청한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어떤 식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온전한 헌신을 받으실만한 분으로 인식하는가?</p> <p><b>학습목표</b>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침례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한 것을 묘사하고 예수님의 주권에 나의 헌신을 표현한다.</p>

## 들어가기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에 헌신하도록 도전한다.

2004년 3월 15일, 캐리 맥도날은 이라크에서 차를 주행하며 총을 난사한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으로 그녀의 남편 데이빗, 그리고 세 명의 다른 침례교 사역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라크의 위험을 잘 알면서도 맥도날은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라크로 갔다. 하나님과 이라크인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이라크로 내몰았던 것이다.

공격을 받은 후 캐리는 우리는 그런 위험한 장소에서 봉사하는 일이 위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캐리에 따르면,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장소를 기꺼이 가지 않을 수 있는가? 그녀와 남편 데이빗은 어떤 사람이 그들을 보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 것이다.<sup>1</sup>

### 나보다 위대한 분 (3:15-18)

로마 제국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 팔레스틴을 장악하고 있었다. 로마의 철권 정치 하에서 백성들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렬해졌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구원자가 다윗 왕의 가계로부터 출현할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전복시키고 유대인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할 한 제사장을 기대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15)의 기대는 또한 메시아의 사상에 연결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부와 풍요의 시대로 이끌어줄 것으로 믿었다.

마음 속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이 왜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쉽게 이해가 된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번역이다. 요한은 곧 군중들의 생각을 바로 잡았다.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위해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 (말라기 3:1; 4:5-6).

요한은 오실 메시아는 자기 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말했다. 요한은 “나는 그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했다 (3:16).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신발 끈을 풀어주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다. 사실, 그 일은 매우 비천한 일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는 일이었다. 예수님의 주권에 비교해서 요한은 자신을 가장 비천한 일을 할 만한 존재도 못된다고 여겼다.

---

<sup>11</sup> Lauri Arnold, “When God said ‘I want you there,’ McDonnalls went to Iraq,” Baptist Press, <http://www.baptistpress.com/bpnews.asp?id=18840>, Accessed 3/10/09.

요한 또한 예수께서 자신보다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 (3:16)이었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상징으로서 물로 침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으로 인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는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극적으로 표현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행 144). 오순절날 성령은 급한 바람의 소리와 “불의 혀” 같이 제자들 위해 내렸다 (행 2:2-4).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능력을 받았다. 같은 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헌신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능력을 받게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다.

불은 정결케 하는 상징이자 심판의 상징이다. 예수께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린다. 요한은 그의 청중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밀을 군중들에게 익숙한 수확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 (눅 3:17). 밀이 수확된 후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키질을 한다. 날려진 쭉정이는 모아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순종치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함 (3:19-20)**

여기에서 누가는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했다. 묘사된 사건들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의 사역 뒤에 왔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따랐다.

누가는 요한이 분봉와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을” (3:19) 인하여 책망했다고 진술한다.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서 헤롯 대왕의 아들이다. 헤롯 대왕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의 처음 아내와 이혼했다. 헤로디아는 헤롯의 조카이자 그의 형제인 필립의 부인이었다.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유대법을 어기는 것이었다 (레 18:16, 20:21). 요한은 또한 다른 악한 일들 때문에 헤롯을 책망했다고 했다.

헤롯은 분노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후에 헤롯은 헤로디아의 요구대로 요한을 참수시켰다 (눅 9:9; 막 6:14-29).

진리로 대항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한다.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그 메신저를 공격한다. 헤롯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요한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었고 그의 책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한은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의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

대부분의 우리는 옳은 일에 설 때 투옥되는 위험에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형태의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동료들이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할 때 우리를 독선적이거나 혹은 속 좁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을 기꺼이 할 것인가?

### **사역을 위해 성별됨 (3:21-23a)**

누가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록을 시작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나아오셨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한 표시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놓여 있는 사역에 대한 공적인 헌신의 표시로서 받으신 것이었다. 이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 (3:22)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확증하는 것이어서, 앞에 놓여있는 고난을 위해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누가의 기록은 기도를 강조하는 특별함이 있다: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3:21).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서 누가는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기도의 역할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기록했다 (6:12; 9:18; 28, 22:25-46; 23:34-46). 기도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누가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 (3:22) 했다고 진술한다.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기름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예수께서 진실로 약속한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 비록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령이 비둘기로 묘사되지는 않았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는 성령의 상징으로 인식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은 이사야 61:1 절의 성취였다: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께서는 그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 말씀을 크게 읽었을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다 (눅 4:18).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말씀 하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3:22).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령의 사상을 조합시킨 것이다. 시편 2:7 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 (Son)<sup>2</sup> 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메시아의 통치를 선포하셨다. 이사야 42:1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종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고 말씀하셨다.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셨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던 사건 사이의 유사성을 주목하라.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사역을 위한 준비 기도를 하신 후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한 뒤에 성령을 받았고 사역을 위해 능력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들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또한 성령으로 권능받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침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그 헌신으로 변화된 생명의 상징이다. 물 속에 잠기는 것은 죄와 우리의 옛 생활방식에 대해 우리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물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공식적인 선언이다. 침례가 구원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헌신의 강력한 상징인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

<sup>2</sup> KJV, NIV 모두 son 이 아닌 대문자를 사용한 Son 이라고 기록한다 (역자주).

누가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의 철저한 헌신을 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여겼다고 진술한다. 또한 예수님은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한 그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이셨다.

우리도 또한 예수께서 우리가 철저히 헌신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침례는 우리가 그 헌신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믿음의 선택을 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의 옛 삶의 방식은 끝난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를 입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가 철저히 헌신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또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 질문

1.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당신의 복종이 당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분명한가?
2.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오직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뿐이었던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 당신이 침례를 받았다면 그 경험을 생각해보라. 그 당시에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 이후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당신이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가?
4.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헌신을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올바르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5. 당신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어떤 영역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필요가 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 [참고]

### 박해 아래서 믿음을 지킴: 영국 침례교도들 (1660-68)

1660년대 영국에서는 영국 의회가 클레렌드 코드라고 불리는 일련의 법을 제정해서 영국 국교에 속하지 않은 무리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었다. 침례교도들에게 가장 힘든 제재 중의 하나는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 침례교도들은 또한 공개적이 박해를 받았다. 가족들은 강도의 위협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웃의 깡패들에게 아이들이 이유 없이 얻어 맞아야 했다.

그 법은 침례교회들이 만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교회들은 가정에서 만나서 주변에 망을 보는 사람들을 세워서 관료들이 오면 신호를 보내게 했다. 목사들은 자주 투옥되었지만 출감되자마자 다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침례교도들만 영국국교회로 넘어갔다. 1679년 박해가 한참인 시기에 브리스톨에 있는 침례교도들은 브리스톨 침례대학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존재한다. 그 대학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대학이다.

<p><b>[제 7 과]</b></p>	<p><b>시험이 올 때</b></p>
<p><b>핵심본문</b> 눅 4:1-13</p> <p><b>배경</b> 눅 4:1-13</p>	<p><b>학습주제</b>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거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본이 되신다.</p> <p><b>탐구질문</b> 오늘날 당신의 가장 힘든 시험을 접할 때 시험에 대처하신 예수님의 본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오늘날 내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지 깨닫는다.</p>

## 들어가기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유혹, 혹은 시험을 받으셨을 때의 신실하신 모습은 우리가 죄와 시험과 싸울 때 따라야 할 본을 제공해주신다.

때때로 시험에 대한 나의 매일의 싸움은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 좀더 잔다고 해서 무슨 해가 될 것인가? 오늘 하루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건너 뛴다고 나의 전적 영적 생활에 무슨 악영향을 끼칠라구? 그리고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 내가 계속해서 이 잡담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인가? 나는 영저긴 목상을 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속으로 빠져드는가?

어떤 시험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다 - 그것들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참을성을 잃지않고 은혜롭게 대하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그 힘을 얻을 것인가? 남편에게 쓰는 말을 하지 않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동기부여를 해야할까?

때때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자주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실패하고 만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소망을 준다. 나는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고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긴다.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는 그의 삶이 내가 약할 때 따라야 할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격려가 된다.

## 본문해설

### 오직 하나님만 인지하기 (4:1-4)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를 한 뒤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포함시켰다. 누가는 예수님의 가계를 아담까지 올라갔다 (눅 3:23-37). 그 족보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분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분임을 드러낸다.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은 죄를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다. 예수님께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실 수 있을까?

예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심을 받았다” (4:1).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이 시험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이끌리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시험에 면역작용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공격대상이 되게 한다. 성령은 시험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누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광야로 이끄셨다고 진술한다 (4:2).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요단강 서부는 메마른 광야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던 장소로 여겨진다. 광야에서 그의 40일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나게 한다 (민 14:26-35). 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예수께서는 시험 앞에서 승리하셨다.

마귀는 예수께서 가장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공격했다. 예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었고 그 금식이 끝났을 때 “주리셨다” (눅 4:2). 긴 금식기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픈 고통의 느낌을 멈추다가 20일부터 40일 사이에 그 고통이 돌아온다. 마귀는 그분의 배고픈 고통이 가장 강렬하고 방어 능력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찾아왔다.

마귀의 말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도전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4:3). 마귀는 예수께 스스로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를 위해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증명해보이라고 도전했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 그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많은 군중에게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쉽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실 수 있었다. 마귀는 예수님께 희생과 고난을 피하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대응하셨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4:4). 예수께서는 신명기 8:3절을 인용하고 계셨는데,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기간동안 만나로 그들을 먹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영적 자원들을 제공하셨다,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말이다.

시험을 물리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의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주실 것을 의존할 때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

##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음 (4:5-8)**

시험들의 순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좀 다르게 나타난다. 마태복음은 산 위의 시험을 가장 나중에 위치시켰지만, 누가는 그것을 두 번째에 위치시켰는데 성전의 시험을 가장 절정장면으로 놓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 5절에서 누가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로 이끌고 가서 그분께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갔던 것을 환상적 체험으로 묘사했다. 마귀는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4:7)고 예수께 말하였다.

마귀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비록 마귀가 “이 세상 임금” (요 14:30) 이라고 언급되지만, 성경은 마귀의 권세가 제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사실 예수께서는 모든 순간에 있어서 마귀에 대한 권위와 권능을 드러내셨다 (눅 10:18; 11:14-23; 13:16; 22:31-32). 마귀는 결국 “거짓의 아버지” (요 8:44)이며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했던 그의 약속들 역시 거짓말, 혹은 터무니 없는 과장이었다.

마귀의 목표는 분명하다. 만일 마귀가 성공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경배하도록 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켰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혼란한 결과들을 낳았을 것이다.

시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항상 그 순간에는 좋아보인다는 것이다. 마귀의 약속들은 황금처럼 화려하지만 그것은 곧 우리 손에서 먼지처럼 날라 가 버릴 것이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죄는 순간적인 쾌락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항상 너무나 크다. 우리를 향한 마귀의 목표는 똑같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서 파괴시키는 것이다.

또 다시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대응하셨다. 그는 신명기 6:13절 말씀을 인용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눅 4:8). 예수님의 절대적인 헌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권위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을 벗어난 어떤 지름길도 거부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을 보여준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알면서도 마귀에게 경배하려고 하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똑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우상은 그 대상에 상관없이 우상이다.

때때로 가장 치밀한 시험은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종종 활동에 안주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연중 스케줄을 꽉 채워나서 돌리는 일에 안주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셨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거부하실 수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헌신하는 일을 성장시켜 준다.

## 시험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 (4:9-13)

성경 말씀으로 두 번 책망을 받은 후 악마는 성경 말씀을 자기를 위해 왜곡시키려고 했다. 악마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4:9). 악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하신 자를 보호하신다는 메시아 예언적 시편 (시 91:11-12)을 인용했다. 악마는 다시 예수께 진정 그가 메시아인지 나타내보이라고 요구했다.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기대 중의 하나는 메시아가 성전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한 신적인 보호하심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일들이 - 혹은 기적 -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마귀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고 십자가의 길보다는 권력의 길을 택하도록 시험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왜곡시키려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신 6:16). 예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가 아니라 조작과 불신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실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나 인격을 증명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처음 것은 겸손과 필요가 동기이고 두번째 것은 의심과 교만이 동기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심했고 불평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을 꾸짖었다 (출 17:1-17).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이 교회에 헌물로 가져올 것을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들의 속임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심판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행였고 결국 그들은 치명적인 종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행 5:1-10).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한 것처럼 행동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신 진리를 증명해보이도록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악마가 성경을 잘 알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 사이비나 이단 단체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특정 구절의 문맥을 잘 살피고 해석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항상 어떤 구절을 읽을 때 문맥 전체를 읽거나 관련된 배경을 살펴야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좋은 주석책이나 주제별 설명, 성경 어휘 색인을 참고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위대한 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성경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예수께서 꾸짖으신 후 악마는 “얼마 동안 떠나” (4:13) 있었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날 전쟁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내내 시험과 싸우셨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예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의 죄없는 삶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게 해주었다. 악마는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다. 예수께서는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 적용 및 실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한다. 첫째는 히브리서 4:15절 말씀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똑 같은 시험에 접하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소망을 준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생활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틸 수 없는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신다 (고전 10:13). 나는 내가 유혹이나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예수님의 본보기는 시험이나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치를 대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라.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최후의 소망을 가져다 준다.

악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한번 패배를 당했다, 그리고 어느날, 우리는 승리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 질문

1.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을 어떻게 격려해주는가? 예수님의 본으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 악마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좋아한다. 당신의 삶 속에서 시험에 가장 연약한 영역은 무엇인가? 그러한 영역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3.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침들은 무엇인가?
4. 시험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은 무엇이 있는가?
5. 당신이 성공적으로 유혹을 물리쳤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 [참고]

###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시험에 대한 다음의 몇 가지 가르침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약 1:1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때 그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신다, (창 22:1)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



- 시험은 안과 밖으로 온다. 어떤 시험은 더 커다란 시험자인 악마로부터 온다 (살전 3:5, 계 2:10).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악이나 이기적인 갈망에 의해 시험을 받거나 그릇된 길로 간다 (약 1:14).
-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위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고전 10:12).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시험을 물리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 (마 6:13).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할 수 있다 (막 14:38).
-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받을 즈음에는 항상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 사례연구

당신 교회의 한 젊은이가 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당신과 함께 그가 겪는 어려움들을 나눈다. 그의 교수들 중의 한 명은 기독교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한 룸메이트는 벽에 수영복을 입은 포스터와 침대 옆에는 포르노 잡지들을 쌓아놓았다. 다른 룸메이트는 토요일 밤에는 파티 때문에 늦고 그가 주일 아침에 알람시계를 맞추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 그의 친구들은 종종 음악회 티켓이나 그가 원하지만 살 수 없는 다른 비싼 물품들을 사곤 한다. 그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 당신은 어떻게 그를 격려할 수 있겠는가?

## 단원 3 :

###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3 단원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 8 과과 9 과는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께서 설교했던 것을 탐구하고 있다. 제 10 과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본다. 11 과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다루고 있고 제 12 과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용서와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단원의 성경 구절들은 예수께서 세상 문화에 대적하시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세상적 편견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뒤엎는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사명, 그리고 평생에 걸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지적인 사랑으로 원수 갚는 일을 물리치라고 도전한다.

#### 단원 3: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제 8 과	오늘 총만한가?	눅 4:14-21
제 9 과	예수님의 급진적 메시지	눅 4:22-30
제 10 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초청하심	눅 5:1-11
제 11 과	예수님의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	눅 6:17-46
제 12 과	용서가 이끄는 곳	눅 7:36-50

<p><b>[제 8 과]</b></p>	<p><b>오늘 총만한가?</b></p>
<p><b>핵심본문</b> 눅 4:14-21</p> <p><b>배경</b> 눅 4:1-21</p>	<p><b>학습주제</b> 하나님의 구속과 공의의 사명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시다.</p> <p><b>탐구질문</b>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사역에 어느정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의 사역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중 사명인 공의와 구속을 이루셨다고 스스로 선언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사명에 헌신하라고 부르신다.

4장 14절부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제공하였으나 이러한 이미지는 암시적이고 추상적일 뿐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된다.

갈릴리는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지방이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에는 인구 만오천명이 되는 마을 204개 있다고 기록했다. 갈릴리 인구가 3백만이다. 믿을수 없을 정도로 인구밀도가 높았다. 갈릴리는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기르는 것보다 갈릴리에서 올리브 나무를 일구는 것이 훨씬 쉽다는 속담이 있다.

갈릴리는 이방민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새로운 진취적 기상이 강했다고 한다

### **성령으로 충만함 (4:1-14)**

예수께서는 금식기도를 마친 후 광야에서 시험을 맞으셨다 (눅 4:1-13, 제 7과 참조). 성령으로 충만해지신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을 활발하게 시작하셨다. 그는 그의 고향 마을인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구절은 주의를 요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 짜여진 것이었고, 인도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시켜준다. 예를 들면 성령은 각각의 예언자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예언적 메시지는 공의와 구속의 주제들을 결합시킨 것들이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는 구절은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연결시켜준다.

###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귀향하심 (4:15-17)**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1세기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미묘하게 상기시키곤 한다. 그것은 간단한 언급 속에서 나타난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우리는 자연적으로 20년의 기독교 역사의 끝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지만 예수께서 유대인으로서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 행함,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때의 개념들을 발견해야 한다.

회당 예배는 한 패턴을 따랐다. 먼저 예배의 부름이 있다; 쉼마 (the Shema)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 신명기 6:4). 예배자들은 십계명을 외우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표준적 대사들을 암송한다. 유대인 성경의 일 부분이 읽혀지는데, 유대 종교력에 따른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성경을 낭독하는 자가 선택하기도 한다. 회당에 있는 신실한 남자는 누구나 성경 구절을 읽도록 요청되기도 하고 해석해주도록 요청되기도 한다. 예배는 축복을 기원하는 말로 끝난다.

전통에 따라, 예수께서는 서서 성경 말씀을 읽었고 앉아서 가르치셨다. 아마도 회중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서 있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서든 회당의 지도자는 예수님께 이사야 두루마리를 건네 주었고 예수께서는 이사야 61:1-2절을 찾아서 큰 소리로 읽었다.

### 하나님의 사명 (4:18-19)

예수께서는 61:1-2a를 읽으셨다. 수세기 전에 그 말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씀은 그들이 자유롭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유대주의 분파는 그 구절들은 예언된 메시아의 일을 가리킬 것이라고 추측했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sup>3</sup>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 내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진술을 한다. 비슷한 형태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을 때에도 역사하셨고 광야의 시험에서도 그랬다 (4:1-13). 예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선포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명이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그 용어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라는 영적인 의미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르게 쓰였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 수입이 없어서 가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매일 일자리를 찾으러 나서야 하는 날품 노동자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경제적인 차원을 포함시켰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백성

<sup>3</sup> 표준새번역 2001년 개정판

이스라엘을 곧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 하나님의 구속은 정치적이 경제적인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 구절은 또한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특히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던 1세기의 유대인들이 떠오른다. 이사야의 선언은 또한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 혹은 죄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이사야처럼 예수께서는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켰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의 사역은 눈먼자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했다. 그러한 기적들은 문자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 기적은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사야 35:5절과 42:6-7절과 같은 예언자적 말씀을 연결시켜준다. 누가복음에서 눈먼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사상을 포함한다.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에 있는 유대 포로들을 놀린 자들로서 묘사했다, 즉 바벨론의 정치적 목적들을 순응하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자들로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언은 그러한 억눌림을 종결시키신다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포로생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와 똑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셨다. 정치적 포로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서 해방될 것이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와 예수님은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에 대해서 언급했다. 나는 작은 침례 교회에서 자라면서 한번도 레위기 25장을 설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놀랄 일도 아니다. 그 비전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다. 50년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빚들을 탕감받게 되고 모든 소유를 본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전통을 경제적 공평성에 대한 열정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활용하셨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 한 명이 나에게 물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지? 나는 그 구절이 구속에 대한 것인 줄 생각했었는데. 죄인들을 찾아서, 용서하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이 아닌가? 나는 결코 이 구절을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

“물론, 그 구절은 구속에 관한 것이지,” 나는 대답했다. “구속은 내가 깨달아왔던 것 이상의 것이 연루되어 있어. 구약의 말씀들을 오래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속은 총체적이라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 그것은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공의 -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종류의 화해가 포함되는 거지.”

## 예수님의 주장 (4:20-21)

예수께서는 앉으셨는데, 이는 당시에 선생의 가르치는 자세로 간주된다. 그는 놀라운 선언을 하셨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최소한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들이 그가 그 성경구절을 크게 읽는 순간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언하셨다. 더욱 정확한 표현은 예수께서는 자신이 그 예언의 살아있는 성취라고 주장하셨던 것이다. 예수서는 자신이 그 예언이요 육신을 입고오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셨다.

## 적용 및 실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한다. 천천히 우리는 두가지 중요한 것들을 또한 발견했다.

예를들면, 몇 년 전에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많은 가족들이 극빈층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과 극빈 가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했다. 그 사역은 주일학교, 스포츠, 사회적 활동들, 직업 기술반, 그리고 예술반이다.

우리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어야 했다. 우리는 먼저 프로그램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고, 장소 역시 그렇게 했다. 또한 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원인력들을 구했다. 우리는 그 가족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내려 놓고 그 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필요가 무엇인지 말하도록 했다. 그들은 그들의 꿈과, 갈등과, 필요들을 말했다. 우리는 함께 그 사역을 위한 비전을 개발했다. 오늘날 그 부모들과 우리들은 파트너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

## 질문

1. 당신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대해 재고했었던 적이 있는가?
2.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이 수세기에 걸쳐서 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
3. 만일 우리가 공의와 구속이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서로 섞여있다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반, 혹은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되겠는가? 변화되겠는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4. 당신 지역에는 어떤 사람, 혹은 민족들이 예수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 과 같이 생각될 수 있는가 (4:18)?

## [참고]

### 회당

유대 회중\*이 모여서 기도와 성경 봉독과 설교와 마무리 축도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곳. 성경 봉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된 순서를 따라 율법(모세 오경)을 읽는 것이고, 거기에 매번 예언서(유대인들이 이해하기로 구약 성경의 역사서도 예언서에 속한다. '정경\*')에서 한 단락씩 덧붙인다. 글을 아는 유대 남자라면 누구나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눅4:16-21; 행13:15 참조).

회당이라는 말은 '모임'을 뜻하는 헬라 낱말에서 비롯되었는데,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회중을 가리키기도 한다(행6:9; 계3:9). 회당 안팎의 행정 업무는 장로회가 맡아 처리한다. 회당 직원으로는 회당 예배의 적법한 진행을 책임 맡은 회당장과 그 때 그를 돕는 회당 시중꾼이 있다(눅4:20). 신약 시대(와 그 뒤로도 오랫동안)에는 회당에서 지역 회당 재판이 열렸다. 율법\* 규정을 어긴 유대인에 대해서는 재판관 세 사람의 판결이 있으면 채찍\*으로 벌할 수 있었는데(신25:2-3), 이 벌은 회당장이 집행했다(막13:9; 행22:19; 고후11:24).



두 명의 가장 중요한 회당 관원들은 아키시나고고스 와 하산으로 불렸다. 아키시나고고스 혹은 회당장은 회당을 이끌었다. 회당의 최고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산은 그 회당장의 부장 역할을 감당했다.

<p><b>[제 9 과]</b></p>	<p><b>예수님의 강렬한 말씀</b></p>
<p><b>핵심본문</b> 누가복음 4:22-30</p> <p><b>배경</b> 누가복음 4:22-30</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우리와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p> <p><b>탐구질문</b> 어떤 부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은, 당신의 반은, 혹은 당신의 교회는 듣기를 거부하는가?</p> <p><b>학습목표</b> 나의 교회와 내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분석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그의 사역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부름받았다고 선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었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믿을수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 순간 생각했었다: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나?” 그 작은 교회는 나를 그들의 목사로 청빙했을 때는 내가 막 19살이 되었을 때이다. 담임 목사가 된 후 6개월이 지난 후, 교회의 선교부에서 선교에 대해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었다. 마지막 수업은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생각하도록 짜여졌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몇 가지 대답들을 내놓았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동네의 이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언급했다.

그 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동주택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20년 이상된 이동주택들이 그 곳에 꼭 채워져 있었다. 가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살마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종종 짧은 기간만 머물렀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가정 폭력, 영양 실조, 그리고 범죄가 그 주민들을 병들게 했다. 수년 전에 다른 교회가 그 이동 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등록시키려고 했었다. 그곳에서 온 극소수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 반을 영망으로 만들었고 그 교회는 곧 그 노력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선교 수업을 듣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을 때 “이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했다. 뒷 자석에 앉아 있었던 한 작은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믿을수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에 반응할만한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나로서는 다행히, 우리 집사님들 중의 한 분이 잘 대응을 했다. 그는 “저에게는 그 말이 이동주택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방인들처럼 들립니다.” 잠시후,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잔잔한 웃음보가 터졌다. 우리는 긴장이 풀어졌다. 그 집사님의 말이 그 토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우리의 제한성에 대해 도전을 하고 변화를 주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와 비슷한 역학 현상들이 오래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일어났다.

## 처음 반응(4:22)

예수께서는 이사야 61:1-2a를 읽으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소외된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 (눅 4:18). 그리고 나서 그는 이사야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다.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상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교사로서 치유자로서 그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예언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이제 그는 마치 그가 약속된 메시아인 것처럼 말씀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은 그를 요셉의 아들로써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이때부터 청년기까지 자라는 것을 쫓 보아 왔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목수로서 알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그를 그들이 다니는 회당의 한 동료로 알고 있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처음 반응을 약간 모호하지만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또한 그의 높아지는 명성이 그들의 마을을 유명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했다. 나사렛이 예언자를 나오게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메시아는 제쳐놓고서라도 어떻게 예언자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예수께서 메시아일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도 그들은 어떤 증명된 사실을 기대했었을 것이다. 그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했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메시아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로마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일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주어다면 그들은 그를 지지했을 것이다.

## 예수께서 병투를 열다(4:23-27)

예수께서는 무리의 기대들을 알고 계셨다. 그는 그의 사명을 그들의 신학적 패키지에 맞추기 위해 조정하지 않으셨다.

먼저 예수께서는 그들이 매우 깊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들에 빛을 비추셨다. 예를 들면, 나는 “의사 선생님, 당신 병을 먼저 고치세요” 라는 말은 의사 선생님, 당신 가족의 병 먼저 고치세요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만일 예수께서 위대한 치유자/ 의사였다면 왜 그는 그가 자라신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들을 이미 행하지 않으셨는가? 그러한 해석은 그 뒤에 따르는 언급과 잘 어울린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눅 4:23).<sup>4</sup>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그들의 제한적 사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셨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써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역을 이곳 나사렛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내가 가버나움에서 그랬던 것처럼 능력으로 가르치는 것을 듣기 원한다. 여러분은 다른 것들도 행하기를 원한다, 아마도 그것은 소경을 보게 하고 그 밖에 비슷한 것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사역의 본부를 이곳 나사렛에 두기를 원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은 그 프레임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은 메시아가 오직 여러분에게 속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일반 속담을 인용하셨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4:24). 우리는 그 속담의 분명한 의미를 이해한다: 가족과 친구들은 우리가 그들이 알고 있는 범주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예수께서는 그 속담을 또한 놀랄만한 전제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에서 두가지 익숙한 이야기들을 꺼내셨다. 엘리야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8-24절에서 발견된다. 둘째로, 열왕기상 5:1-14절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 이방인의 과부의 집으로 피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위해서 두 가지 기적을 베푸셨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적은 양의 양식과 기름을 크게 불려주셨다, 그래서 그 예언자, 과부, 그리고 그녀의 독자가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둘째로, 그녀의 아들이 갑작스런 병으로 죽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셨다. 이

---

<sup>4</sup> 표준새번역 2001년 개정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가뭄과 기근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아만 장군은 이방의 왕을 섬기고 있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한 히브리 여종이 그를 엘리사에게 보냈다. 처음에 그 교만한 사람은 가기를 거부했다. 심지어 그가 예언자를 방문한 뒤에도 그는 엘리사가 그에게 하라고 시킨 것, 즉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것을 거부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그를 설득시켜서 하라는 대로 했다. 그가 그 강에서 몸을 씻었을 때, 그의 나병은 고쳐졌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아만을 고치셨다. 비록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나병 환자들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었음에도 말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요점을 설명하셨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상관하신다는 것을 말이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방 여인, 그녀의 아들, 그리고 힘센 이방인 장군을 돌보셨다. 그러한 예언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야는 얼마나 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사역을 해야 하겠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 **하나님을 멈출 수는 없다 (4:28-30)**

회당의 무리는 화가 났고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내쫓았고 그를 절벽까지 내몰았다. 군중은 예수님을 그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했었다, 아마도 예수께서 돌로 맞는 것을 피하려는 기회조차 않으려던 것이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였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당황하게 했다. 누가는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눅 4:30)라고 기록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 군중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최소한 누가는 우리가 그 군중이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우리의 지지하든 안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소식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다.

## **적용 및 실천**

내가 알고 있는 한 남자 그리스도인이 강한 마약 중독에 걸린 젊은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특히 법정에서 마지막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그들은 마약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 감옥에서 장기 수감생활을 해야한다. 나의 친구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과 상담원을 제공해주는 무료 봉사센터를 세웠다.

그는 그의 교회에 그 그룹이 매주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사역이 그러한 마약 중독자들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졌다. 긴장감을 가지고 그 교회는 그 사역에 협력했다. 수 년 뒤에 그 사역은 마약중독에서 벗어난 졸업생들을 통해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 그 “졸업생” 들은 마약 중독에 걸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돕고 있다.

나의 친구와 그의 교회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역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잘 감당했다. 당신은 똑 같은 헌신을 했는가?

## 질문

1. 이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 교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당신의 교회는 그러한 사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2. 지혜로운 교회 지도자가 그동안 간과되어 온 사역의 기회를 살피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때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3. 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은 예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인용했을 때 그렇게 화가 났는가?
4.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관심과 사랑에서 제외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들은 종종 그렇게 행동하는가?

## [참고]

### 엘리아와 엘리사

엘리아는 B.C. 9세기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 그는 특히 이세벨 여왕과 그녀가 이스라엘에 우상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들과 저항했다. 엘리아의 가장 유명한 모험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경합을 벌였던 일이다 (왕상 18:20-38). 그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 년간의 가뭄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다 (왕상 17:1).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엘리아는 이방 땅이었던 시돈에 거주하였다. 엘리아가 보통 혼자서 활동했지만 최소한 한 명의 제자는 있었다: 그 제자는 엘리사였다. 엘리아가 사명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 간 뒤 엘리사가 그를 계승했다.

엘리사의 사역은 엘리아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아는 그를 자신의 계승자로 기름을 부었다 (왕상 19:19-21). 그는 약 50년을 사역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두 예언자들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엘리아와 엘리사는 우리 나라로 따지자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위치와 비슷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아울러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 대중적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사용하셨다.

### 적용하기

- 당신이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를 거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돌보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대로 사역하고 있지 않는 곳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p><b>[제 10 과]</b></p>	<p style="text-align: center;"><b>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도록 부름 받음</b></p>
<p><b>핵심본문</b> 눅 5:1-11</p> <p><b>배경</b> 눅 5:1-11</p>	<p><b>학습주제</b>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p> <p><b>탐구질문</b>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부응하는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방법들을 파악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모으기 위해 함께 일하셨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했다.

나의 할머니께서는 깨어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 농장에서 일하셨다.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셨고 목이 마른 소들에게 물을 먹이고 점심을 먹이고 저녁식사도 준비하셨다. 밤에는 우리들의 숙제를 도우시거나 농장의 가게부를 쓰셨다.

나의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셨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셨던 것은 낚시였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벌레들을 잡아서 트럭에다 낚시대를 싣고 근처에 있는 호수에 가곤 했었다. 대부분 그녀는 나를 데리고 갔었다. 그녀는 나에게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알려주기 원했다.

나는 어느날 할머니와 함께 낚시터에 가서 능숙한 할머니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 차례 실패를 반복하면서 고기를 잘 낚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같이 낚시 하기 원하셨다.

## 본문해설

### 호수 아래서 (5:1-3)

예수께서는 유대에서 잠깐 들르신 후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는 한번 더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누가 보음은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라는 보통 쓰이지 않는 이름으로 언급한다.

“게네사렛” 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상기시켜 준다. 우리는 보통 그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부른다.

갈릴리 호수는 큰 호수였다. 남북으로 길이가 13 마일이 되고 동서로 8 마일 정도 되는 크기였다. 어떤 곳은 깊이가 200 피트 되는 곳도 있었다. 수산업이 그 호수를 주변으로 발달되어 있었다. 어부들은 다양한 그물을 사용했다, 하지만 대부분 트라멜(중망)이라고 불리는 그물을 사용했었다. 몇 척의 배들이 둥글게 포위를 하고 한 쪽에 쳐 놓은 그물로 고기를 포획했다.

어부들은 보통 밤에 고기를 잡았다. 고기는 밤에 깊은 곳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잡기가 낮보다 쉬웠다. 또한 어시장의 상황들이 어부들의 스케줄에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시장에 팔기 위해서

밤에 고기를 잡아놓아야 했다. 일이 다 끝나면 그들은 다음날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말리고 수선을 해놓아야 했다.

예수님이 도착하신 때는 한창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때였다. 즉 일반인들을 고기를 사거나 팔고 있었고,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던 때였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 당시에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 기적으로 잡음 (5:4-7)

예수께서는 어부들 중의 한명이었던 시몬을 알고 계셨다. 이전에 예수께서는 심각한 고열을 앓고 있었던 시몬의 어머니를 치료해주셨다 (눅 4:38-39). 아마도 이것은 시몬에게 그의 배를 물에 띄워 그 배위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했었던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시몬은 아마도 그의 일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실 때나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이다. 그에게 더욱 놀라왔던 것은 예수께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었다.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존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 예수께서 어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은 어느 누구도 낮에 고기를 잡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몬의 뱃사람들은 방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베드로와 그의 선원들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 그러자 거의 바로 그물은 물고기로 찢어질정도로 가득찼다. 시몬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주변에 배들이 도우러 왔지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배들이 가라 앉을 지경이 되었다.

야고보와 요한을 포함한 모든 어부들은 너무나 놀랐다. 하지만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후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도 자주 그랬지만 시몬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템포 빨리 반응했다. 그는 예수께 말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5:8). “주”라는 용어는 중요한 어떤 것을 표시한다. 최소한 그 순간 시몬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시몬은 거룩하신 분 앞에 자신이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야처럼 (이사야 6 장),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반응했다.

우리는 시몬이 어떤 어조로 말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글의 저자)가 생각하기에 슬픈 기색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혹은 원하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몬은 그저 예수께서 자신을 떠나 주시기를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 **와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라 (5:8-11)**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라” (5:10). 천사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에도 비슷한 말을 사용했었다 (1:30). 누가는 그의 독자들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좀더 커다란 스케일의 이야기 (메시아 이야기) 속에 잡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원했다.

시몬은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5:10). 기적으로 잡은 물고기에 둘러싸여 있는 배 안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 예수께서는 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 평생을 고기를 잡는 일에 바쳐온 시몬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예수께 모아 오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을 주셨다고 말할지 모른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그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를 따르게 하셨는지 말해준다. 누가복음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평생의 사명이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눅 4:14-21 절의 공부 내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사람들을 낚는 것”은, 즉 구속의 복음을 나누는 일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이다.

시몬과 다른 어부들은 그들의 배를 해변에 댔다. 그렇게 한 뒤 시몬,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았다” (5:11). 그 구절은 다양한 해석을 야기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그 말씀은 그들이 그들의 젓은 그물, 배, 그리고 물고기를 놔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의미일 수 있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기에 충분하다. 한 철에 일하는 어부들은 배와 그물에 투자한

것을 건지고 어시장에 내어 놓을 물고기들을 최대한 많이 잡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만 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관습을 깨는 것이었다. 다른 어부들은 그들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들은 아마 그들의 일꾼들과 가족들에게 남겨진 일들을 맡기고 떠났을 것이다. 그 사업은 특별한 문제 없이 남겨졌었는데, 이는 후에 그들이 예수께서 돌아가신 뒤에 다시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요한복음 21 장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규모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그냥 떠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소유주처럼 회사를 돌보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들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떠나는 일은 매우 위험한 모험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안정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는지 배우기 위해 따라갔다.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의 우리의 경향과 비교해보라.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의미를 토론하고 우리의 일상 삶으로 그냥 돌아간다. 시몬을 부르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돕도록 도전하고 있다.

## 적용 및 실천

내 친구는 두 개의 파트 타임 일을 한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오면서 산다. 그가 한 지역 모텔이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는 거주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거기에 사는 많은 가족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 필요한 옷, 그리고 제대로 된 의술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

내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 소위 “블루 칼라 (노동자 계층)” 라고 부르는 한 작은 교회에 출석한다. 그는 그의 관심을 교회에 말했다. 기도와 깊은 숙고 끝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 모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힘쓰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월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나의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매월 그 교회는 음식을 제공한다. 그들은 또한 옷과 다른 의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힘쓴다. 좋은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든다. 그 사역이 성장하면서 그 교회는 의료와 같은 다른 사역들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성경공부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나는 종종 나의 친구와 함께 그 모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그의 전형적인, 특색있는 표현으로 한번은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배우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 질문

1.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시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정규적인 일을 멈춘 적이 있는가?
2. 당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볼 때 다른 사람들이 시몬,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남겨두고” (눅 5:11) 갔었던 때를 어떻게 반응했었을 것 같은가?
3. 당신은 당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히 예수께 인도해야 된다는 강한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4. 오늘 수업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삶에 변화를 주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참고]

###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 잡이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 당시에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렸다. 마을과 도시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생성되었다. 가버나움은 호수 근처에 있는 주요 도시들 중의 하나이며 어업의 중심지였다.

생선은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단백질 음식이었다. 어부들은 그들의 신선한 고기들을 가까운 시장에 팔아 넘겼다. 물고기는 또한 소금에 저리거나 혹은 말려서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으로 수송되었다. 어부들은 해변과 바다의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았다.

어부들은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호수에 의존했다, 하지만 그들은 날씨를 믿지 못했다. 오후에 불어오는 광풍들은 자주 주변에 있는 고지대로부터 불어왔었다. 그 날씨는 종종 저녁과 한 밤중에 불어오기도 했다.

<p><b>[제 11 과]</b></p>	<p><b>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말씀</b></p>
<p><b>핵심본문</b> 눅 6:17-46</p> <p><b>배경</b> 눅 6:17-46</p>	<p><b>학습주제</b> 제자들은 우리 문화에 반대되는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예수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p> <p><b>탐구질문</b> 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설명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가?</p> <p><b>학습목표</b>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정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역행하는 태도와 삶을 살아가야될 때가 자주 있다.



어느날 점심식사를 하면서 몇 명의 친구들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은 나의 관심을 끄는 언급을 했었다. 그는 말했다, “미국 기독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소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역사적으로 처음 질문을 했었던 나라라는 것을 알아?” 맞다. 그렇지 않은가? 대부분의 경우 그런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도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물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문화적 규범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도록 비전을 주시고 그가 살았던 것처럼 살도록 도전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현대 문화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위 “평지 수훈” 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공해주셨다.

## 본문해설

### 산으로부터 내려오심 (6:17-19)

예수께서는 철야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은 예수께서 사역의 과정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의 첫번째 제자들은 천천히 예수님의 본을 배우기 시작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일상 삶 속에 그러한 수양과 수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간다. 천천히 살아가는 법을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다. 만일 예수께서 그러한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아침이 되자 예수께서는 산에서 평지로 내려 오셨다. 거기에서 예수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 왔다. 대부분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 도시들과 마을 이름은 그 가운데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계셨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로부터 더 작은 무리로 그의 눈을 돌리셨다. 그는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역하시기는 했지만 그의 사역의 중점은

그 열 두사도에게 있었다. 그는 어떻게 그와 같이 사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지 가르치셨다.

## **복과 환 (6:20-26)**

“세상이 뒤집어지기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살면된다,” 나의 친구는 이렇게 말하곤 했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세상의 문화와 잘 적응하고 어울리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뒤집어 엮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교훈들을 주시곤 하셨다. 그는 복과 환의 형식으로 그의 말씀을 전하셨다.

“복있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또한 ‘행복한’ 혹은 ‘참으로 행복한’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1 세기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처럼 행복을 추구했다. 그들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 자녀들, 건강, 사업의 성공과 같은 것들.

행복에 대한 당신의 카탈로그를 작성해보라. 다른식으로 말한다면 무엇이 당신이 복을 받았다고 느끼게 만드는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좋은 친구가 나에게 그는 자기가 돈이 많이 있을 때, 먹을 것이 많을 때, 아주 건강할 때, 그리고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않을 때 복을 받은 것으로 느낀다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복에 대해서 역설적인 말씀들을 하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난과, 굶주림과, 슬픔과 그리고 박해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만일 당신 나와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마태의 팔복에 더 익숙할 것이다 (마 5:2-12 절 참조).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기록하였다.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더 문자적으로 기록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누가의 기록을 좀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분명히 1 세기의 군중들이 그랬다. 그들은 “가난”이라는 용어를 일일 노동자, 과부, 고아,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다. 배고픔은 그러한 가난과 동반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과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믿었던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부를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받아들인다.

## **내적 사랑이 열심이다 (6:24-36)**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도 내적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예들은 그의 청중들로부터 강한 느낌을 일으켰다.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악용되고 핍박을 받는 느낌을 알고 있었다. 로마에 의해 고용된 세리들은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청중들을 착취했다. 그들은 복수를 꿈꿨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로마를 성공적으로 전복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들에게 잘 대우하기를 원하시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모든 문화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보다 더 멀리 가야한다고 주장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모습을 보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이다.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의 문화와 전혀 다르거나 반대인 사람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 **판단하지 마라 (6:37-42)**

예수께서는 문서화되고 비문서화된 규칙들의 문화 속에서 살았다. 사람들은 서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까지 말할지도 모른다. 예수께서는 전혀 반대로 말씀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다.

두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판단을 하는 관습이 잘못된 것임을 풍자하셨다. 처음 비유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비유는 눈에 들보가 들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러한 비유들은 오늘날의 정치 풍자 만화와 약간 비슷하다: 그들은 유머를 사용해서 요점을 말한다. 이 경우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죄가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긍휼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집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미덕을 실천해야 된다. 나는 그 교훈을

묵상할 때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곤 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용서와 은혜 때문에 혼동이 되고 이상한가?

## 순종 (6:43-46)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우리의 삶을 과실수에 비유하셨다. 각 나무는 각각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행동과 태도들을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었다. 누가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당신은 얼마나 자주 그 사도들이 실패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을 그렇게도 힘들어하는가? 두 가지 대답이 떠오른다: 개인적인 죄의 영향력과 문화 속에 박혀 있는 죄의 영향력이 그것이다.

그러한 죄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꾸 예외를 찾으려고 하고 변명을 찾게 만든다. 주일학교 교사들 중의 한 명이 용서도 한계가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 그는 2차세계대전에서 싸웠던 사람이다. 마음 속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독일군이나 혹은 일본군을 용서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오늘 본문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거나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때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르도록 부르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개인적 문화적 가정들을 도전한다. 우리가 그 오래된 가정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리고 실천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약 한달 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다. 나는 우리의 대화를 즐겼다. 나의 친구는 독서를 좋아하고 생각이 깊었다. 사실 그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이 싫은 것이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다,” 라고 그는 종종 말한다. “무슨 말이나 하면 만일 그렇다면, 왜 내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원수들에게 복수를 할 것이라는 소리를 라디오를 통해 그렇게 많이 들을까? 십자군 소리는 하지도 말고!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것 같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전혀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한 대화는 만일 우리가 좀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 질문

1. 오늘 수업을 생각해볼 때, 당신은 다음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미국 기독교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최소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역사적으로 처음 질문을 했던 나라라는 것을 알아?”
2. 오늘 본문 수업 내용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아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가?
3. “원수들”은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로부터 무엇을 받을만한 사람들인가?
4. 예수님의 인생을 바꾸는 교훈을 거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변명들을 하는가?

## [참고]

### 팔복

예수께서는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는 교훈을 새롭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대신에 그는 히브리 성경에서, 즉 우리가 보통 부르는 구약성경에서 배운 것이었다.

대부분의 구약의 복들은 이스라엘의 예배서인 시편에서 발견된다. 그 예들이 시편 1; 2; 41; 65; 84; 106; 111; 그리고 128 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니엘 12:12 절은 부가적인 예들을 제공해준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찬송곡이나 합창곡처럼 익숙하게 들었을 것이다.

팔복은 보통 한 가지 확언으로 시작한다: 복이 있는, 혹은 행복한이 그것이다. 그 확언은 복을 받은 사람의 간단한 묘사로 이어진다. 예를들면, 시편 1:1-2절은 선언한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p><b>[제 12 과]</b></p>	<p><b>용서가 이끄는 곳</b></p>
<p><b>핵심본문</b> 눅 7:36-50</p> <p><b>배경</b> 눅 7:36-50</p>	<p><b>학습주제:</b>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위대함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인식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p> <p><b>탐구질문:</b>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당신의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 위해 어느정도까지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을 어느정도 나타내고 있는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의 용서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왔는지 돌아본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지 인식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바비와 나는 어린시절에 학교와 교회를 함께 다녔다. 바비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아주 낡은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쩌다 일을 하곤 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었다. 그 가족의 모든 아이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했다. 바비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즈음에 그는 어떻게 거짓말 하고, 속이고 훔치는지 알았었다. 그는 아마도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회고해보면, 우리가 바비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우리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우리는 곧 어떻게 그를 왕따시키는지 알게 되었다. 심지어 어른들도 바비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두려움과 함께 우리는 바비를 멀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었다, 특히 바비와 그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놀랍게도 바비는 어느 주일 아침에 우리 작은 교회에 왔다. 그는 망설이면서 문 안쪽에 서있었다. 우리들중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 나는 그날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에게 다가가 자기 자리 옆에 앉게 했던 여인을 잊지 못할 것이다. 예배 내내, 그녀는 그가 성경을 찾고 찬송가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예배를 마친 후 바비 옆에 서서 목사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날 무언가 좋은 일이 시작되었다. 바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이다. 그녀의 도움으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또한 목사님과 나머지 우리가 바비에게 관심을 갖도록 종용했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우리의 관점은 바뀌었다. 우리는 바비를 우리의 한 무리로서 대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수 년이 더 지난 후 그녀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다. 사실은 그녀도 바비와 같은 때가 있었다고. 그녀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뼈둘게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고 말이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었지.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느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바비를 보았을 때 나는 나와 같은 어떤 사람을 보았던 것이고, 나는 그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가 용서 받았던 체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강하게 이끌어 주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7:36-50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여인의 이야기를 알았을 것이다.



##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식사 (7:36-39)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일반적인 기대들을 무너뜨리셨다. 그는 이방인 백부장의 노예를 치유하셨고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다 (눅 7:1-10). 예수께서는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그 독자를 일으키셨고 그리하여 그 과부의 여생을 돌보셨다 (7:11-17). 그의 행동들을 바리새인들을 혼동시켰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침례 요한조차도 그랬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았다 (7:18-35).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의 저녁식사에 초대했다. 저녁식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샌달을 벗었다. 예의바른 초대자는 입맞춤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저녁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낮은 침상에 기대고 바닥에 앉았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 대화는 종교적 율법에 관한 것이었을 것이다. 시몬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행동을 시험할만한 경우를 사용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고 싶었다.

그러한 저녁식사는 때로 외부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식사를 하는 사람들 주위에 모여서 그들의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었다. 아무도 그들을 신경쓰지 않았다. 그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잠잠하게 있어야 했으며 그 식사에 어떤 식으로든 끼어들면 안되는 것이었다.

“죄인”에 속한 자로 알려졌던 한 여인이 도착했다. 성경은 그녀의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그녀는 정결의 법을 지킬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는 정결의식으로 깨끗하게 하지 않은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녀가 매춘을 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가족이 없는 한 독신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춘녀가 되었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시몬은 그녀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여인은 규칙을 어겼다. 그녀는 울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춤을 하고 향유를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닦았다. 시몬은 그녀의 행동이 미친짓이라고 생각했다. 죄인은 의인 앞에 설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있어야 했으며,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시몬은 그녀를 쫓아낼 권리를 느꼈고 어쩌면 그녀를 어떤 벌을 줄 생각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 예수님의 통찰력 (7:39-43)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녀와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인 모습은 시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그의 관점으로 볼 때 참된 선지자는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접촉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몬은 예수께서 그녀의 행동을 물리치시고 저주하셔야 했었다고 믿었다.

시몬은 결코 예수님과 그 죄인인 그 여인이 함께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생각을 파악하시고 그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다.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 (7:40)이라고 불렀던 것을 주목하라. 시몬의 생각구조를 볼 때 아마도 그는 이 용어를 비꼬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내포된 모욕을 무시하시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질문을 던지셨다.

그 비유는 같은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였다. 한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졌다. 한 데리아온은 대략 오늘날 현대인의 하루 최소 임금정도 된다. 모든 것을 감안해볼 때 그 두 사람은 일일 노동자였다. 그 두 사람은 공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가난. 그 두 사람 모두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빚을 갚을 수 없었다.

식탁 주위에 있었던 시몬과 다른 사람들은 그 비유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마도 그 두 빚쟁이들이 처벌을 받는 정도로 생각했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채권자가 그 두 사람의 빚을 면제해주었다는 말을 하셨을 때 그들은 놀랐다. 나는 그 비유가 시몬을 어리둥절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빚을 진 사람들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단말인가? 그는 자기가 아무에게도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마음을 열고자 했다. 그는 시몬에게 어느 빚쟁이가 그 채권자에게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시몬은 자기가 생각할 때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예수께서는 그가 바른 대답을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 **비유 (7:44-46)**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시몬과 그녀를 비교하셨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시몬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비교는 불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 시몬의 세계관으로는 그과 그녀는 아무 것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죄인이었고 자기는 의인이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구분을 거부하셨다. 그는 시몬과 그 여인이 똑같이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셨다: 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다.

시몬은 그가 어떻게 예수를 잘못 대우했는지 들통나고 말았다. 비록 그는 예수를 만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하대했다. 시몬은 관습에 따라 예수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이나 혹은 머리에 바를 기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서, 시몬은 스스로 예수를 심판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믿었다. 그는 예수님이 시몬과 어울리는 부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과 그 여인은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일반적인 사고를 역행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그녀의 행동을 인정하셨고 시몬은 부족한 자로 여기셨다.

## **심판 (7:47-50)**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 받았음을 선언하셨다. 그는 자신의 의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한 그녀를 칭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더 커다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또한 시몬의 사고방식과 그러한 사공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셨다. 그는 그들이 스스로 심은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셨다.

그 식탁에 있었던 손님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다. 어떻게 그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히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말이다. 그렇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들은, 즉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그 식탁에 함께 앉아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오직 “죄인” 인 여인만이 분명하게 보았다.

## **적용 및 실천**

당신이 만일 테네시의 멤피스에 있는 어떤 피자 가게를 가면, 내가 제프라고 부르는 이 남자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 제프는 안수 받은 판매 대리로 살아가는 안수 받은 목회자이다. 제프가 말하는 것처럼 그 피자 가게는 그의 사역하는 교회이다. 수 년전에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예술가들과

학생들을 전도하기로 결심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일 주일에 몇 번씩 그 피자 가게에 찾아오곤 했다.

제프는 그 체험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주었는지 말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이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스스로 죄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나는 스스로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의로운 자로 여겼었다. 나는 너무나 교만했었다. 사람들은 나의 태도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은 나를 멀리했다. 어느날 내가 앉아서 피자를 먹고 있는동안, 한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자이다!”

아무튼 내가 죄인들 가운데서 먹고 있는 한 죄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피자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가족들,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소망조차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나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조차 했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내가 우리의 공통적인 필요를 인식하면 할수록 더욱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질문

1. 바비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2. 왜 당신은 그 바리새인이 만찬에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생각하는가?
3. 왜 당신은 예수께서 그 만찬 초대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가?

4. 성경 구절의 어떤 내용이 당신을 가장 도전하는가? 당신의 교회에 가장 도전적인 내용은?

## [참고]

### 만찬

우리는 시몬 바리새인의 집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만찬의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추측하기 쉽지 않다. 그 만찬은 집 안이나 혹은 집안의 뜰에서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장소이었던, 관습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만찬 식탁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허락되었다.

손님들은 낮은 침상이나 베개에 기대어 앉았다. 음식은 낮은 식탁이나 혹은 매트에 놓였고 손님들은 한 팔로 침상에 기대고 다른 팔로 음식을 집어 먹었다. 그들의 발은 식탁 반대 방향으로 향해야 했다.

공개 포럼을 하는 그러한 만찬을 생각해 보라, 그러한 만찬에서 손님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하곤 했었다. 우리들은 재미로, 혹은 배우기 위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주제들은 그 만찬을 초대한 사람에 따라 다양했다. 만일 그 만찬이 유명한 이방인의 가정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손님들은 문학, 정치, 혹은 비슷한 주제들을 토론했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들의 만찬 토론은 보통 해석이 어려운 율법에 대한 것이었다.

## 단원 4 :

### 예루살렘으로 가심

이 단원의 네개의 과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과 십자가을 지시기까지의 여정을 말해주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다. 많은 우리들이 병치료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수를 따랐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에 대해 더욱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소외된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권능을 맛보았다.

이 단원 전체에 걸쳐서 예수께서는 종교지도자들을 꾸짖고 소외된 자들을 격려하신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셨고 그 나라를 축제가 넘치는 나라로 설명하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더욱 가까워 지셨지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전도하셨고 그들이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다.

교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들은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이기보다는 들판에서 돌아온 형과 같다. 우리는 자주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비판하고 예수께서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들을 무시한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다. 바로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메시아의 축제에 초청하는 일을 함께 하자고 말이다.

#### 단원 4. 예루살렘으로 가심

제 13 과	좁은 문, 한정된 시간	눅 13:22-35
제 14 과	우선순위 문제	눅 14:1-24
제 15 과	그 파티에 가고 있는가?	눅 15:1-2, 8-32
제 16 과	치명적인 실수	눅 16:19-31

<p><b>[제 13 과]</b></p>	<p><b>좁은 문, 한정된 시간</b></p>
<p><b>핵심본문</b> 눅 13:22-35</p> <p><b>배경</b> 눅 13:10-35</p>	<p><b>학습주제:</b>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은 특정한 반응을 요구하고 오직 한정된 시간에만 가능하다.</p> <p><b>탐구질문:</b> 인생을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장악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p> <p><b>학습목표:</b>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요구들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반응의 긴급성을 깨달는다.</p>

## 들어가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서있는가? 구원은 보편적인 것도,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다. 누가복음 13:3,5절에서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눅 13:22-35절에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이 좁고 반응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질문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13:23). 예수께서는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사람 스스로가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물으셨다. 이것은 시대에 걸쳐 계속된 질문이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토론했던 주제이다. 수천명의 무리들이 그를 따랐다 (14:25절 참조).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그를 시험하려고 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과 군중들의 찬미에 신경쓰지 않으셨다.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그 사람의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대답하셨다. 그는 나누는 날이 다가 오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세세토록 성도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은 좁은 문 (13:24), 한정된 시간 (13:25), 요구되는 반응 (13:25b-30),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신성 (13:31-34), 그리고 다가오는 슬픔 (13:35)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 **시대에 걸쳐 계속된 질문 (13:22-30)**

모든 종교는 이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 대부분 그들의 종교에서 요구되는 신성한 의무들을 완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부여한다. 무신론자들은 이생 후에는 삶이 없다고 믿고, 논쟁가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지옥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오직 악한 일을 한 사람들만 가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종종 죽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던지 간에 더 좋은 장소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아마도 교회가 복음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심지어 교회도 이러한 개념 속에 있는 경우도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다. 그는 이 구절들 가운데서 필연적인 심판의 날과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신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13:23-24). 구원은 그것을 받기 원하는 사람의 어떤 반응을 요구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

누가복음 13:6-9절에서 예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다. 그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소유한 사람은 “과수원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했다. 그 “과수원지기”는 조금 더 시간을 요구했지만 후에 그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잘라져 버려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 비유는 반응할 마지막 기회가 있을 것이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누가복음 13:25절에서 한번 그 집의 주인이 문을 닫으면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그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를 알아왔고 교제해 왔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13:27).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상이 멸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노아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방주를 준비했다 (베드로전서 3:20; 베드로후서 2:5절을 참조하라).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셨다, 즉 믿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너무 늦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 24:37-41).

신약성경은 지속적으로 심판의 날을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는 날로 정의한다. 자기 자신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3:10-16절에 나오는 회당장은 1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의 필요보다 안식일에 대한 해석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종교적인 활동에 안주했다.

온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회당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왔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을 주목하신다. 사마리아인, 갈릴리인, 매춘녀, 그리고 세리가 종종 그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게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셨다. 그의 신성은 표징과 기적들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신조와 우선순위에 갖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 **지블 된 값 (13:31-35)**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값을 치르고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그의 사명을 위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접근해서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13:31). 우리는 그들의 동기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를 그들의 동네에서 쫓아내기 위하기 위한 시도였는지 알 수 없다. 예수께서는 헤롯을 두려워하거나 압박감을 느끼지도 않으셨다; 사실 그는 헤롯을 “여우” (13:32)라고 부르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는 헤롯이 교활한 자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는 파괴적인 성경의 소유자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의 랍비들의 글에 의하면 여우는 하찮은 인물을 일컬을 때 쓰는 비유였다. 왕중의 왕되신 분이 어떻게 일개 갈릴리의 왕을 두려워 하겠는가?

예수께서는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선언하셨다. 여기서 “가야 하리라”에 사용된 원어 동사는 강력한 단어이다 (13:33).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는 상태이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놓여질 장소로 선택된 그 도시는 예언자들을 죽였던 도시였다.

예수께서는 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곧 도착할 것이다 (13:33). 아마도 예수께서는 베뢰아 남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곳은 여전히 헤롯의 관할구역이었고 예루살렘까지 이를 걸리는 곳이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라는 표현은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인데 이는 예수께서 삼일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34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종종 예루살렘을 마치 암탉이 자신의 새끼들을 날개로 품듯이 보호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께서는 그 도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음에 틀림이 없다. 어떻게 그렇게도 많은 복과 은혜로운 하나님의 증거를 목도한 도시가 그 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도 볼 수가 없었을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가셨을 때 병든자들, 가난한자들, 그리고 억눌린자들을 보셨다. 그 성전은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꾼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과 의식들을 부로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구원하기 갈망하셨다.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도시들을 바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억눌려 고통을 받는 자들의 소리들이 여전히 울리고 있다. 가난한자들과 이방인들을 잘못 대우하는 일이 계속 되고있다. 쾌락이 신이 되었다. 사람들은 영생에 무관심하고 그들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어주는 종교들을 갈망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교회들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상함과 찬양과 경배의 소리들을 들으실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중보 기도들을 들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비웃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온유한 행동들을 보실까?

## 적용 및 실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도록 구해야 한다.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나는 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보다 나 자신의 종교적 위치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점점 더 판단하고 고집스러워지고 있는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말씀하시게 해야 한다. 가족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의 이웃이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당신의 교회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가?

## 질문

1. 예수께서는 눅 13:23절에 있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질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사람은 무엇을 물었다고 생각하는가?
2. 예수께서 먼저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일까?
3. 당신 교회 주변, 혹은 집 주변에는 어떤 민족들이 살고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그들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4.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

## [참고]

### 헤롯

신약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몇 번 언급된다. 아래는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한 것이다. 분봉왕 헤롯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언급된 사람이다.

1. 헤롯 대제 (73 B.C. 출생) 는 기원전 40-4년까지 왕이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성전을 세웠지만 그는 한번도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헤롯은 자신의 라이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들에게는 매우 잔인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조차 죽였다. 마태복음 3장은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는 헤롯의 잔인성을 기록하고 있다.
2. 아킬레오 헤롯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자리에 올라 기원전 4년부터 기원후 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다 (마 2:22). 하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3. 분봉왕 헤롯 (눅 3:19 참조)는 안티파스 (Antipas)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갈릴리와 베뢰아를 물려받았다. 그는 침례 요한을 투옥시키고 참수했었던 왕이었으며 예수께서 눅 13:32절에서 “여우” 라고 불렀던 자이다.

4. “헤롯 왕” (행 12:1)은 아그립바 (Agrippa)로 알려진 왕이었다 (기원후 41-44 통치).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고 아마도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들의 관계 때문에 그들을 공격했던 인물일 것이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5. 아그립바 2 세는 헤롯 아그립바의 아들로써 기원후 27 년에 출생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서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그립바는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었다 (행 26:28).

<p><b>[제 14 과]</b></p>	<p><b>우선순위</b></p>
<p><b>핵심본문</b> 눅 14:1-24</p> <p><b>배경</b> 눅 14:1-24</p>	<p><b>학습주제:</b>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종교적 의식, 인간의 야망, 그리고 일상생활의 업무보다 우선권을 차지하는 것이다.</p> <p><b>탐구질문:</b> 우리의 생활에서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의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고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한다.</p>

## 들어가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셨다. 두 개의 질문이 이 비유를 마친후 던져졌다:  
당신은 거기에 있을 것인가? 당시은 거기에 데려올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이 파티를 좋아하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 모든 잔치가 흥미롭고 재밌겠지만 유익하다고는 묘사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잔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나의 할머니의 집에서 나의 삼촌들, 이모들, 그리고 다른 친척들과 함께 모였다. 모든 사람이 훌륭한 남부 음식을 준비해왔다. 2-3일 동안 우리는 웃고, 먹고, 놀고 이야기들을 했다. 이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모임들이다.

누가복음 14:15절에서 손님들중의 한 명이 말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옳았다, 비록 그가 추측한 것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그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종교적인 남자였다.

예수께서는 그 메시아의 잔치에 대한 개념을 결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의식, 인간의 야망, 그리고 바쁜 일살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우선권을 두고 있다.

## **종교적 인식에 오도되지 말라 (14:1-6)**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한 종교 지도자의 가정에 만찬을 위하여 초대받으셨다. 그것은 마치 함정과 같은 것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눅 11:53). “고창병 (dropsy)” (14:2)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팔다리에 물이 지나치게 차서 부풀어 오르는 질병이었다.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전문가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환자를 고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안식과 예배를 위해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으로 준수했고 율법을 짐이 되고 옳아 매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안식일에는 요리조차도 할 수 없었다. 식사시간에 손님들 앞에 있는 빵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차려 놓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신성하게하고 따뜻하게 하는 일도 강력하게 금지되었다. 예수께서는 물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만일 그가 안식일을 범한다면 어떻게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이 정당할 수 있겠는가?

이 율법 교수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며, 토론하며, 가르치는 일만을 하며 살아왔다. 그들은 높은 도덕적 삶을 살았고 결코 종교적 의식들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들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의 한 명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묻기를,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14:3).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일 자체는 사실 정의되지 않았다. 율법 전문가들은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수많은 실례들을 뽑아내었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는 많은 경우들에 대해서 말해준다 (마 12:9-14; 막 3:1-6; 눅 6:6-11; 13:10-17; 요 5:1-8; 9:1-41 참조). 예수께서는 이 경우들을 사람이 종교적 의식을 지키는 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귀한 교훈들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셨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아무말도 못했다.

예수께서는 그 환자에게 손을 뻗어서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를 내보냈다. 그는 그후에 아픈 질문을 던졌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눅 14:5).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의무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서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고집스럽고 위선적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인들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서 있고, 또 초청하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가? 우리는 교인 아닌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의 전통이나 의식 속에 너무 빠져 있지는 않은가? 심각한 중독에 빠진 한 여인이 그녀가 교회에 나와 보려고 했었는지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대답했다, “내가 왜 거기에 가야돼요? 나는 이미 충분히 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인간의 야망에 눈멀지 말라 (14:7-15)

예수께서는 그 만찬에 온 손님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셨다. 그는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칭찬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14:8-10)

예수께서는 예수께서는 먼저된자가 나중될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될 것이라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직접적으로 가리치셨다. 그 자리는 “바리새파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이었다 (14:1). 권세와 특권이 종종 지도자들에게 커라단 유혹이었다. 바리새인의 경우, 예수께 대한 그들의 적대감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위협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들의 동기는 종종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의해 드러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리와 특별한 대우를 위해 싸우기까지 했다. 마태복음 20:20-28 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께 그녀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은 그녀의 요구하는 소리를 듣고 분개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초대할 것을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즉 친구, 친척, 혹은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눅 14:13-14).

### **비범 생활로 방향을 잃지 말라 (14:16-24)**

그 만찬 초대는 잘 알려진 사람으로 고려되는 손님들에게 먼저 돌아갔다. 하지만 각각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들의 삶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나 일들로 너무 바빴다.

로마인들은 하루에 네 번 먹었다. 그리스인들은 하루에 세 번 먹었다. 히브리인들은 두 번을 먹었는데 아침 10 정도에 한 번, 그리고 해질 무렵에 또 한 번 먹었다. 분명히 그 만찬은 아침 시간은 아니었고 저녁 식사였을 것이다. 이러한 식사 초대는 두 번을 확인했는데, 한 번은 만찬을 하는 며칠 전에, 또 한 번은 음식이 다 준비된 다음 당일날 한 번 더 연락했었다. 이러한 이유로 손님들은 미리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첫번째 사람은 땅을 사서 그 땅 좀 보러가야 되므로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밤에 땅을 보러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일이었고 땅을 사기 전에 먼저 보고 사는 것이 정상이었다. 두번째 사람은 다섯 마리의 소를 사서 시험해보러 나가야 되므로 못가게 됐다고 핑계를 댔다. 이러한 변명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나는 새로산 고급차를 한 번 몰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식사에 갈 수 없습니다. 세번째 핑계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손님은 말했다, “나는 결혼했습니다” (눅 14:20). 분명히 비록 그 초대받은 손님들이 처음에는 초대에 응했지만 사실 그 잔치가 그들에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은 다른 활동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 집주인은 그의 종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말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14:21).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자리가 남았던 것을 볼 때 그들중 어떤 사람들조차도 거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자 그 주인은 말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14:24).

예수님의 의미는 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그 주인이 확실하게 알아들었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쫓겨난 사람들을 두번이나 말씀하셨다. 만일 그 사람이 잔치 초대를 거부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오라; 만일 그들이 거부하면 이방인들을 불러오라.

이 당시의 세리들이나 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보다 복음에 마음이 더욱 열려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그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거부했고 그 초대는 이방이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비어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마음이 가장 많이 열려 있는 자들은 상처받고 간절히 구하고 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에 실패한다. 휴가와, 부와, 친구, 그리고 심지어 종교로 가득차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는데 실패한다. 그 잔치를 위해 엄청난 값을 치루신 주님께서서는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핑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계속해서 초청하신다.

예수님의 처음 초대는 우리가 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게하는 것이다. 그후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가서 참석할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도록 초대하신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나눌 것인가? 우리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만찬의 시간은 가까이 있고 그 초청은 긴박한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누가복음 14 장의 복음은 (기쁜 소식)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잔치라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다른 많은 것들로 가득차 있고 어리석은 것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그 율법 주신분을 놓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개인적인 일들로 가득채워져서 그 초청을 거부할 것인가?

교회는 그 잔치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가득 채우는 종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 초청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응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 질문

1.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그 종교 지도자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2. 예수께서 이 유에서 두 번 언급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은 누구인가? 오늘날 그들은 누구인가?
3. 어떻게 그 좋은 큰 길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강청” 해서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었는가?

4. 우리의 종교적 의식들 가운데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가?
5.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
6. 하나님 나라의 기회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는 있지 않은가?

## [참고]

### 안식일

안식일 법은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출 20:8-11; 23:12; 31:12-17; 34:21; 35:2-3; 신 5:12-15; 레 19:3; 23:3; 26:2). 한 성경 학자는 이렇게 요약한다, “안식일 명령은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휴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안식일에는 (그리고 정월 초하루)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담할 수 있었다.”

랍비들은 후에 금지되어야 할 구체적인 목록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더 자세하게 만든 의도는 율법으로 막아야 되는 것과 행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였다.

안식일과 관련해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안식일은 은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짐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7-28)

<p><b>[제 15 과]</b></p>	<p><b>잔치에 참여할 것인가?</b></p>
<p><b>핵심본문</b> 누가복음 15:1-2, 8-32</p> <p><b>배경</b> 눅 15:1-32</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들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게 한다.</p> <p><b>탐구질문:</b>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자리에 당신은 갈 것인가?</p> <p><b>교육목표:</b>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결정</p>

## 들어가기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변화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이 장은 결론이 없이 마친다. 그 형은 그 잔치에 갈까? 우리들은?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을 체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규율들을 지키고 의무를 지키는 삶인가? 누가복음 15장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고통스러운 종교인이었다. 때론 이러한 삶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발견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흘러넘치기 보다는 의무감이나 보상을 받기 위한 의식 속에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 활동을 한다.

예수께서는 그를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며 비난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다.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본 것처럼 소외된 자들과 버려진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 빨리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장의 주제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변화로 인한 기쁨이다.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은 결론이 없이 마친다. 그 형은 그 잔치에 와서 함께 기뻐할 것인가? 우리는?

## 그리스도의 사역 (15:1-2)

우리는 15장에서 우리를 위해 보존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 여기서 두 가지 비유를 읽어보게 된다.

유대의 종교 및 국가 생활에서 버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 냉대받던 이들 “세리들”과 죄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차갑고 냉혹한 종교를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을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분을 예수님에게서 찾았는데 그 분은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구원과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정기적으로 그의 말씀을 들으려 갔으나 이런 행위는 유대 랍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좀처럼 감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흠없이 깨끗한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을 품지 않으셨다.

주님은 타락한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수 있었으며 더구나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밖의 사람은 엄격한 바리새인들까지도 자신이 부패할 위험성이 없이는 예수님처럼

타락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한 길을 따르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서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사정과 태도에 비추어 사물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버림받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였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을 불러 진정으로 회개시키러 온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자기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나쁘게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 복음서에서 15 장을 몇 장 지난 뒤에 삭개오라고 불리는 한 세리의 집에 머무셨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의인이라기보다는 죄인으로 낙인찍혀 있었던 사람과 함께 머문다는 것을 그들의 적대자를 책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눅 19:7). 하지만 삭개오는 변화되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 누가복음 15 장의 비유들

### 잃어버린 양(15:3-7).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 비유에서 그는 먼저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고와 희생과 고통도 너무 크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게 한다. 숲속과 절벽과 계곡에서 오랫동안 찾다보면 아주 고생스럽겠지만 그래도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일을 계속한다.

주님의 고난 곧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고난이 아주 가까이 온 것을 보면서 그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자신의 속죄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그를 통해 계속 잃어버린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십자가상의 구속사역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셨다.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두번째 문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목자의 기쁨과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는 그의 행동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의 비평자들에게 그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지 말고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 가운데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진지하게 촉구하신다.

그들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버림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만 했다. 이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온당한 일이다.

#### 잃어버린 동전 (15:8-10).

앞에 나온 비유에서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찾는 일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고 여기에 나온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는 그것을 찾는 행동의 철저함이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옛 교부들이 여기서 특별히 성령의 계몽과 통찰력있는 사역에 대한 것을 주시한 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인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 비유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림을 당한 자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기뻐하라고 촉구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이 두 가지 비유에서 그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관심의 눈길을 돌리는 이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연하며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과 또한 그의 비평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인상적으로 보여 주셨다.

전세계의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그의 은혜로 잃어버림을 당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를 찾는 분으로 알고 있는 것같지 않다. 타종교의 문헌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신을 찾고 동경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 주님이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으며 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은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다. .

#### 잃어버린 아들(15:11-32).

이 비유는 “복음 중의 복음” 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속에 많은 복음 진리가 아름답고 사실적인 방법으로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전술한 두 비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나온 두 비유에서의 주된 강조점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반해서 이 비유에서는 주님이 인간적인 측면을 밝게 비추주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고 또한 그의 생전에 그 재산을 선물 형식으로 자식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대개 본 비유에서 장남의 경우에서처럼 아버지가 비록 아들들에게 각각 그의 몫을 나눠주었을지라도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용익권(用益權)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 비유에서 작은 아들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실제로 그 몫을 양도해 주기도 하였다.

“먼” 나라에서 불유쾌한 경험으로 환멸을 느낀 그는 결국 자기 아버지를 뿌리치고 떠난 그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가를 깨닫는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풍부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불행한 상태를 아주 적나라한 현실에서 보고 있다.

참된 회개로 향하는 첫 단계는 사람이 최악의 먼 나라에서 그가 처해 있는 불행을 의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실질적인 그의 빈궁과 수치스러울 만큼 더럽혀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 비유에서 최악의 “먼 나라” 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의 쓰라린 결과, 잘못에 빠진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온 것, 반겨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죄인이 회개할 때의 그의 기쁨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맏아들의 태도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한다고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그려내고 있다. 맏아들이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즐거운 축하 잔치와 돌아온 아들에게 보인 환대를 못마땅하게 여겨 몹시 화를 낸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세리들” 과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의 정신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도 들어가자고 권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28 후반절). 아버지는 편애하지 않으시고 두 아들을 똑같이 너그러움과 애정으로 대하신다. 그는 작은 아들에게서처럼 큰 아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들” 과 죄인들만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외적으로는 아버지와 여전히 함께 있으나 내적으로는 그를 멀리 떠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에게 와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고 그는 선언하는데 이것으로 그는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자식으로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관계가 아니라 노예적인 속박 관계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의 말은 그가 자만하여 자신을 완전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아주 비판적인 눈초리로 자기 동생을 그와 정반대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자기가 모든 존귀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기 동생은 아버지에게 속한 그 어떤 것도

주장할 만한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행동을 그가 더 이상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탕자에게 극도로 치우친 편애로 여긴다(그러므로 그는 자기 동생을 ‘내 동생’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 이라 말한다).

이와 같이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전반적인 태도를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도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며 그들의 신앙을 노예적인 속박과 독선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도 영적으로 냉랭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눈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세리들” 과 죄인들을 경멸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와 풍성한 생명을 받아 즐기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내적인 소원인 것이다.

## 교회의 사명

교회의 임무, 가치관, 열정은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부지런히 찾는 그 여인처럼,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그 아버지처럼 용감해져야 한다.

비록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적 관습들을 게으르지 않으셨지만, 그는 또한 소외된 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다.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논쟁을 하고 의식을 준수하고, 죄인들을 정죄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불안에 빠진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환자들을 고치시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시기를 위해 애쓰셨다.

교회가 여러가지 행사나 이벤트에 빠져서 얼마나 교인들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우리는 죄인들을 멀리 하며 그들을 정죄하며 서 있는가?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나서기 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고, 교회의 연중 달력에는 여러가지 다른 행사들로만 채우고 있지 않은가?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당시의 많은 비평과 정죄를 무릅쓰셨다. 그는 그렇게 하셔야 했다;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다. 그는 항상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기쁨이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주신 기쁨이었다. 교회가 개인이, 한 가족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변화되는 삶을 체험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기쁨 속으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잔치에 초대

하나님께서서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셨다 (4:18). 그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것인가?

## 질문

1. 예수께서 누가복음 15 장에서 누가 죄인들이라고 하셨는가?
2. 의인들은 누구인가?
3. 우리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은 누구인가?
4. 우리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규정짓는가?
5.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시도하고 있는가?
6. 나는 기도해야 할, 그들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갖기 시작해야 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누어야 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세 명을 알고 있는가?

## [참고]

### 죄인과 의인의 구별

누가복음 15:1 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2 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그에게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웅성거렸다. 7 절과 10 절에서 우리는 죄인과 의인의 비교를 발견한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

로마서 3:23 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누가복음 15 장의 용례는 그 공동체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무리이다. 신약 학자 요아킴 예레미야 (Joachim Jeremias)는 이 사람들을 비도덕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멸시 받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설명한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그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셨을 것이다. 그들의 옷, 행동, 활동,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의 지위는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들은 또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었다 (마 23),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아버지의 비유에서 그 탕자는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맏형은 의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용서하는 사랑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p><b>[제 16 과]</b></p>	<p><b>치명적인 실수</b></p>
<p><b>핵심본문</b> 눅 16:19-31</p> <p><b>배경</b> 눅 16:19-31</p>	<p><b>학습주제:</b> 우리 사회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에 대하여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준다.</p> <p><b>탐구질문:</b> 당신의 소유를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바, 특별히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는가?</p> <p><b>교육목표:</b>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나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평가하는데 있다.</p>

## 들어가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만약에 개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고양이를 개 앞에 놓아보라.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 앞에 누군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데려다 놓아라. 의인의 가장 분명한 척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들은 보통 이야기로 시작해서 적용으로 끝이 난다. 그 분은 좀처럼 등장인물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동일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사치스럽게 살면서 날마다 왕처럼 옷을 입었던 이름 모를 부자이다. 그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찾는데 급급하여서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을 알지 못했다.

나саро가 죽었을 때, 천사가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갔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으나 그는 천국에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 (16:19-21)**

부자는 축복받은 것으로 보인다. 집, 자가용, 그리고 호화로운 휴가 등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미국사람을 부자로서 바라본다. 오늘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전능하신 왕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좋아하는 자” 라고 말씀하셨다(눅 16:14). 비록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적으로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 앞에 서있는 메시아를 여전히 알지 못했다. 누가 복음 15 장의 말아들과 16 장 19-31 절의 부자는 아마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당시의 의로운 해석이었던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정반대의 가치를 묘사하는 끔찍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어리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로 축복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난과 질병으로 저주한다고 생각하며 만족하였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러한 종교주의자들에 저주처럼 들렸을 것이다.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몇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대입하였을 수도 있다.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이름을 대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자신의 부유함에 속아 왔다.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맘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화려한 옷을 사고 날마다 진수성찬의 저녁식사를 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 하였다(16:19).

부유함은 안전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다. 누가 복음 12:19 절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고 하신다(12:20). 부자는 가난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부유함은 현재의 삶에 안전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게다가 앞으로 올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누가 복음 16 장에서 부자의 부요한 삶은 나사로의 가난과 직접적으로 대조되고 있다.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성경은 그가 “[부자의] 때문에 누워” 있다고 말한다(16:20).

“누워” 라고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문 앞에 내던져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사로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음이 틀림없다. 그는 고통에 덮여 있었고 굶주려 있었다.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았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다(15:16). 마찬가지로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자 하였다.

이 이야기 당시에는 식탁에서 손을 닦기 위해 사용할 냅킨이나 수건이 쓰이지 않았다. 어떠한 도구 없이 식사를 하던 당시에 사람들의 손은 더러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빵조각을 물에 담가낸 후에 자신의 손을 씻고 나서 식탁 아래로 던졌을 것이다.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방을 어슬렁거리던 개들이 열심히 먹었을 것이다. 나사로는 너무나 허기져서 개들의 음식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이야기 속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괴롭히거나 혹은 문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것은 없다. 또한 그는 나사로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도록 하는 어떠한 불공평에 대한 인식, 동정심, 긴급함이 그에게는 없었다. 그 부자는 자기 음식을 만족스럽게 먹었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었고, 자신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렇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또 다른 사람의 곤경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 뒤바뀐 운명 (16:22-26)

우리는 죽음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된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죽게 된다.

나сар가 죽었을 때, 그의 장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의 삶에 축복이 없었던 만큼이나 버림받은 그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알고 계셨다. 나사로의 죽음에 천사들은 즉시 그에게로 와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예수님은 항상 이러한 “작은 자들”을 알고 계셨다. 예리고에서 예수님은 로마의 세금 징수원으로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던 삭개오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머무르셨다(19:1-10).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가져오는 유력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져오는 가난한 과부에 주목했다(21:1-4). 예수님은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셨고, 나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고, 그리고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어부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сар가 그러한 놀라운 환영을 받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삶을 축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음부에 떨어졌다. 그곳에서 그는 고통가운데 있었다. 멀리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고통가운데서 구해주시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비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묘사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 말고는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된 바는 매우 적다. 그러나 부자의 결말은 놀라운 것이다. 불꽃에 타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울부 짖었다.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그의 혀에 댄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구원이 되었을 것이다. 음부는 고통스럽고, 고립되고 또 소망이 없는 곳처럼 보인다.

이러한 처벌을 가져오게 된 부자의 죄는 무엇이였을까? 우리는 보통 지옥을 끄찍한 범죄자, 폭군, 살인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을 위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부자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어떤 표현도 없다. 사실 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저명하면서도 종교적인 사람으로 알려졌을 것이다. 부자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곤 자기 재산으로 자기만 위하고 나사로를 무시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전부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 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로부터 분리된다고 말씀하셨다. 의인이라는 증거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한 한 사람의 행위이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4-36).

마태복음 25 장의 말씀은 착한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이러한 동정의 표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의인은 자신들의 행동이 예수님에게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확대된 사랑의 행위는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된 마음의 증거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행위가 아닌 것이다. 살인사건에서 연기가 나는 총은 그 사람의 유죄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죄의 증거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아주고, 거절당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보여준 관심의 부족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증거였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 (요일 3:17).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일 4:19-21).

## 살아있는 자들에게 경고함 (16:27-31)

자신의 상황이 전혀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부자는 자기의 남은 다섯 형제를 기억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형제들에게는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었다. 그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경고를 무시하였고, 형제들이 똑 같은 짓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자기 형제들이 믿게 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운 대답을 하였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눅 16:31).

우리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 극적인 것을 볼 수 있기만 하면 믿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구이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요 11 장), 그 기적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5,000 명을 먹이고 난 다음날, 현장에 있던 동일한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고 싶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의 동생들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다.

## 적용 및 실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종교 행위 혹은 스스로 규정한 도덕성을 통해서 온다고 우리 스스로를 확신시켜왔는가? 교회의 성도 자격, 신성한 의식,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가? 우리의 개인적인 성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인가?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불행한 처지에 의해 행동에 옮겨지는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는가?

우리는 우리의 변화가 진실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였다(요일

3:14).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가능하는 가장 분명한 척도가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거짓된 가정 혹은 잘못된 열정에 모험을 걸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 혹은 세상의 즐거움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 라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 질문

1. 예수님이 이 이야기에서 부자를 언급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었는가?
2.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는가?
3. 이 이야기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4. 하나님과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온 부자의 죄는 무엇이었나?
5. 당신의 천국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6.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동정으로 지난 달에 내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 [참고]

## 음부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리스어의 “음부” 라고 표현된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열 번 나오는데 - 요한계시록에서 네 번(계 1:18; 6:8; 20:13; 20:14), 그리고 마태복음(마 11:23; 16:18), 누가복음(눅 10:15; 16:23), 사도행전(행 2:27, 31)에서 각각 두 번이다. 누가복음 10:15 절에서 음부는 천국과 대조하여 사용되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27 절과 31 절의 오순절 설교에서 시편 16:10 절을 인용하였는데, 음부는 죽음과 연관되어 나오고 있다. 지옥은 보통 신약성경에서 심판의 무서운 장소이지만, 누가복음 16:24 절에서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울부짖는다.

## 단원 4 :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5 단원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가복음 23-24 장에 대한 두 개의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가는 이 두 장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음의 바로 앞 부분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 자신이 고난 받을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외쳤던 열렬한 환호성은(누가 19:37-38), 얼마 안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으로 바뀌었습니다(23:21, 23).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도전은(20:27-38)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사실임이 증명되었다(24:6).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누가복음 22:67, 70 절에서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다. 예수님은 “내가 그라”<sup>1</sup>고 대답하셨다. 이 고백은 후에 다소 정치적으로 이용되긴 했어도(22:71; 23:2) 예수님을 고발하는 죄목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23:38).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이 그리스도라면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24:46)!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것이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열정적으로 응답해야 한다(2:10; 24:52).

누가복음 23 장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배우게 된다. 그 분은 바라바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당신을 대신하셨다. 그 분은 조롱당하고, 고난 받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 5 단원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17 과 십자가 죽음 - 우리를 위하여

누가 23:1-26, 32-49

18 과 부활 - 우리를 위하여

누가 24:1-10, 33-39, 44-48

<p><b>[제 17 과]</b></p>	<p><b>십자가 죽음      우리를 위해서</b></p>
<p><b>핵심본문</b>          눅 23:1-26, 32-49</p> <p><b>배경</b>          눅 22:14-23:56</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자 선택 받은 분이심을 보여 준다.</p> <p><b>탐구질문</b>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중요한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도록 하는지 말해보게 하라.</p>

## 들어가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택받은 분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졌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죽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바라바라고 부르죠. 일상적인 저녁 같으면 사람들이 내가 다음 음모 혹은 강도질을 계획하고 있음을 발견하겠죠. 그렇지만 그 날 저녁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해 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막 벌어지고 있는 도시의 성벽 너머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 전체가 이상한 어둠에 덮혔을 때,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여인들은 슬프게 울부짖었죠. 땅은 흔들렸고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서늘함에 몸을 떨면서 피부를 아프게 하던 쇠고랑이 채워져 있던 발목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선생님이 당한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둠이 내리고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해 했죠. 두려웠습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팔짱을 끼고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 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누가 23:21)라는 군중들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23:18)라고 사람들이 외칠 때,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의아한 것은 사람들이 내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바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은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단지 종교적인 힘 겨루기의 작은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비난받아 마땅한 반역자요 죄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예수-을 사람들은 단지 “이 사람” (23:4) 이라고 불렀지요. 그는 정치적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갈보리라는 끔찍한 언덕을 떠올리던 때를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 날의 끔찍했던 죽음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갔었던 가를 떠올리며 몸서리칩니다.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은 나왔으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 (23:3)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불러냈을 때, 그와 눈이 마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증오와 질시를 보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얻어터진 얼굴에서는 사랑만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은 내가 저야 할 십자가를 저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나 같은 범죄자인 한 친구는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축하할 기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누가는 바라바를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첫번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바로 그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행 - 그분의 열정 - 은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누가복음 9장의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어났는데,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눅 9:51)라고 기록합니다. 그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은 유대인의 축제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관례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다가올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유월절 음식으로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붙잡히실 것입니다.

## 예수님은 죄가 없다(23:1-16)

23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을 언급한다. 1절에 있는 “무리”는 누가 22:66절에서 언급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 관리들을 말한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의 총독이며 중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갔다. 로마에게 점령당한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저주라고 하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법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고발이 정치적인 죄목이라면 로마인이 처벌할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여 고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가르쳤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20:20-26절을 보라), 이러한 죄목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마침내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기름부음 받은 왕, 즉 메시아적 왕이라고 하였다는 정치적인 죄목을 들이댔다.

누가는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조작된 고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했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하셨을 때 일종의 말장난은 시작되었다. 언어의 유희가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셨을 때 일어났다. 2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고 고발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호칭인 기름부음을 받은 왕을 뜻하는 것이었다. 3절에서 빌라도는 종교적인 부분은 무시한 채,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이냐고 질문했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무죄였다!



5 절에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불안을 유발한다는 자신들이 고발한 첫번째 죄목을 다시 주장하였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밝히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에게 보내었다(23:6-7).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진실로 기적을 일으키는지 직접 보고 싶어했다.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23:1-16 절에서 보듯이 종교지도자들과 헤롯의 병사들은 군중들 앞에서 그 상황의 중요성을 끌어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하였다. 예수님은 헤롯에게서도 무죄로 밝혀졌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만한 그 어떤것도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 **바라바를 대신하다(23:17-26)**

유대 지도자들은 군중들의 협조를 힘입어 예수님을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다시 주장하였다. 세번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였고 그들은 세번째로 사형을 요구하였다. 이 시점에서 빌라도는 정의로움에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것으로 보였다. 군중들의 뜻대로 하라고 하였다.

바라바는 살인과 정치적 폭동죄로 감옥에 있었다(23:19,25). 로마의 법체제에 따르면, 바라바는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였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 **조롱받으시다(23:32-43).**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도 십자가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처형하는 것이 군인들에게는 좀 더 수월한 일이었다.<sup>1</sup>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예수님의 양 옆에서 처형되었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 그리고 다른 사람은 왼쪽이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누가 23:34).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행하셨다(6:22-23, 27, 35).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다. 누가복음 24:34 절의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같다. 예수님의 뜻을 제비뽑기한 것은 시편의 예언(시 22:18)의 완성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개의 서로 다른 집단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정치적으로 조롱하였다. 이러한 조롱은 “이는 유대인의 왕”(누가 23:38)이라고 십자가 위에 쓰여진 죄목에 대한 고발이었다.

게다가 예수님 옆의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둘 가운데 한명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23:39)라고 조롱하여 말했다. 또 다른 죄수는 빌라도와 헤롯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였다.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탁했다(23:41-42).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불쌍한 죄수만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알았다.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대답하셨다(23:43). “오늘”의 개념은 누가복음 2:11 절에서 “메시아적 구원의 때가 시작됨” 2이라는 뜻으로 소개되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가복음 4:21 절의 “오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성경말씀(누가 4:18-19)이 그 하룻동안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누가복음 23:43에 있는 “오늘”이라는 말은 죽음과 오실 부활이라는 예수님의 희생적 제사라는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 당시, 낙원이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에덴 동산(창세기 2:8; 13:10; 에스겔 31:8)을 생각나게 했고, 광야가 에덴, 즉 “동산”(이사야 51:3)이 되는 미래의 회복을 기억나게 했다 3. 신약성경에서 낙원은 의인이 영원히 사는 곳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다(고후 12:4; 계시록 2:7). 누가복음 23:43에서 이 용어는 죄인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신약성경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 같다.

### **예수님께서 죽으시다(23:44-49)**

제 육시는 하루 중 가장 밝은 때인 정오다. 제 구시는 오후 세시였다. 1세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둠이 오고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을 어떤 줄지 않은 징조로 생각했었다. 고대의 로마 역사가들은 황제 혹은 중요한 인물들의 죽음에 앞서 이 같은 징후들이 종종 있었다고 기록했다.

성전의 성막은 전통적으로 성전의 제일 안쪽인 지성소 입구에 있는 커튼이라고 알려져 있다. 성막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유대의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출애굽기 26:33).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찢어진 성막이 하나님께서 성전의 성막 뒤에 숨어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것이다. 성전 체제는 이제 소용없게 된 것이다.

## 적용 및 실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 치욕적인 조롱을 견디어 낸 것, 고통가운데 품고 있었던 그분의 열정, 그리고 땅을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배웠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각각의 면면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자가의 죽음은 중요한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라바, 십자가의 죄수, 백부장에 대하여 배웠다.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거나 아니면 영원히 바뀌었을 것이다.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단 한번의 충분한 제물이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성막이 찢어졌다. 그 십자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배우고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매우 겸손하고 감사하는 매일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값지면서도 거저 주시는 선물인 구원을 이해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 질문

1.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죄목은 무엇이었나? 그것은 합법적이었나? 왜 그런가? 왜 그렇지 않은가?
2.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군중들 속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놓아달라고 소리쳤겠는가? 바라바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3. 비록 말씀 속에 분명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날 군중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흥분되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믿음과 같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을 반대하게 되는 강압적인 상황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만나게 되는가?
4. 당신이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던 저녁에 홀로 앉아 있는 바라바라고 상상해 보아라. 예수님의 희생을 되새겨 보아라. 당신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참고]

###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 처형 방법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 실제의 장소조차 수치스러움의 표상이었다. 누가복음 23:26, 32 절에는 예수님과 다른 두 죄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요한은 십자가 처형 장소가 “성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말해준다(요한 19:20).

제사가 있던 날, 희생 제물의 잔해들은 유대 진영의 외곽, 즉 거룩한 곳의 외곽에 버려졌다(레위기 16:27). 더욱이 이러한 고의적인 죄목들은 저주의 죄로 간주되어 진영 밖에서 처형되었다(레위기 24:11-14; 민수기 15:30-36). 예수님은 저주라는 죄로 고발되었고(누가 22:70-71) 예루살렘 성 밖(즉 거룩한 진영 밖)에서 처형되었다. 히브리서에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고 말하고 있다(히 13:11-13).

<p><b>[제 18 과]</b></p>	<p><b>부활하심      우리를 위해서</b></p>
<p><b>핵심본문</b>          눅 24:1-10, 33-39,          44-48</p> <p><b>배경</b>          눅 24:1-52</p>	<p><b>학습주제</b>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p> <p><b>탐구질문</b>          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가?</p> <p><b>학습목표</b>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야기한다.</p>

## 들어가기

누가복음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세 무리를 언급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

1982년 11월 소련의 최고지도자인 레오나드 브레즈네프의 장례식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브레즈네프는 철저한 무신론을 가진 공산 독재자들 가운데 마지막 인물이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장례식이 믿음의 행위를 목격하는 마지막 장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병사들이 그의 관 뚜껑을 닫으려고 막 도착했을 때, 브레즈네프의 부인은 감정과 어쩌면 믿음에 휩싸여서 재빨리 아래로 내려가 브레즈네프의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다.<sup>1</sup>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서의 표시, 그리고 인생에 의미를 주려고 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비평과 무신론의 궁극적인 실패라는 표시로서 남아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소망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라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어둡고 희망이 없는 순간에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뭔가 의미있는 것을 열망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예를 들어 나(로니 후드)는 수년 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공립학교의 휴게소에 앉아있던 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모스크바 공립학교 체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놀랍게도 어느 늦은 오후의 차 마시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게 되었다. 학교 교장인 나탈라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믿을 지도 모르는 것을 당신은 왜 믿고 있는지 보여줘요!”

그녀가 듣고 싶어했던 대답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성경 본문 속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첫 일요일 아침에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여자와 제자들처럼, 성경은 과거에도 또 현재도 우리의 증인입니다.

##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여자들 (24:1-10)**

부활절 아침, 여덟살 된 딸 아나타샤는 교회의 새벽예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날 밤그 아이와 여섯살짜리 남동생은 아직도 밝은 깜깜한데해가 뜨길 기다리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일찍이 일어나 교회에 가고 싶어 흥분해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현실이 닥쳤을 때, 옷을 입고 나니 얼마나 피곤한지 또 열정도 다소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 아이는 부활절 의복을 갖추어 입고 차에 올라탔다. 이른 아침 시간에 교회로 운전해가고 있는 동안 아나타샤는 “엄마, 예수님은 분명히 일찍 일어나셨죠, 그렇지요?” 하고 물었다.

정말로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갔다. 그녀들의 주님은 죽었다.

이 여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0 절에 나와있다. 여자들은 향품을 시신에 바르는 것을 포함하는 장례절차를 책임지고 있었다.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천한 일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 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라 (눅 9:48b).

무덤은 둥근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 동굴과 같은 무덤이었다. 돌은 동굴을 막거나 열도록 궤도를 따라 굴러 내려갔다.2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누가 훔쳐갔을까? 이어지는 본문 속에 답이 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 두 여자가 “근심할” - 당혹할 - 때에 “두 사람” 이 그 여자들에게 나타났다(24:4). 23 절에서 그들은 “천사” 로 언급되었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고 있냐고 물었다(눅 20:38 절을 보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속에서 한 천사가 마리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1:26-38), 여기에서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출생 이야기에서,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에 관한 것이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받게 될 배신, 고통,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하신 말씀들을 기억했다(9:22, 44; 18:31-33). 누가복음 24:6 절의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구절을 좀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셨느니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이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이 선언은 부활절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다 -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는 누가복음 8:1-3 절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온다. 원어의 문법 구조는 세번째 여자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에 제일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마리아는 마가복음 15:40; 16:1 에서의 관계를 확인해보면 야고보의 어머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세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은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다. 사도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전달했던 이 세 여자와 함께 다른 여자들도 등장한다. 그러나 그 여자들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눅 24:11).



##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제자들 (24:33-39)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24:31).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못알아 보았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증거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24:18-27).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접대는 그 당시 문화에서 중요한 사회적 특징이었다). 예수님은 식사하기 모였을 때 떡을 떼으로써 집 주인의 역할을 했고, 이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24:35).

그들(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여기 나오는 열한 제자는 9절에서 언급된 제자들이다. 이 때는 유다를 대신한 제자가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세 그룹이 다시 모였다 - 두 제자, 열한 제자,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다른 제자” 들이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그들은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고 했다(24:34). 이로써 그들은 여자들이 주장한 것을 확인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 -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34-36 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인도한다.

누가복음 24:5 절에 나오는 무덤에서의 여자들처럼,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심하는 이유가 마음 속의 불신임을 알고 계셨다.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와서 만져보라고 초청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이 육과 혈로 이루어졌음을 확신시켜 주셨다(24:38).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두려움을 없애주셨다(24:37).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본질상 단순히 영이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강한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신 혹은 자신의 다른 형태가 아니었다)!

##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성경 (24:44-48)

이 구절은 단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여자들에게, 시몬에게, 열한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의 모습 등등)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이 고난의 사건들의 전체적인 연속성 - 고통, 죽음, 그리고 부활 - 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고난에 앞서 자신이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모든 사건들을 예언했던 그 동일한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메시아와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과 연결지었다. 예수님은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해석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셨음을 보여준다. 그 분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에 적혀 있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다(24:46-47).

누가는 모든 족속에게 용서와 회개를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이 명령은 사동행전 1:8 절에서 구체화된다, “너희가 …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는 제자들의 역할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았다. 특별히 그들은 누가복음 24:46-47 절에서 언급된 일들의 증인이었다.

## 적용 및 실천

누가복음 24 장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다양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각자의 필요에 맞게 육체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이 모든 고난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기억시키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누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 자신의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으로 강해진다. 우리는 천사들과 빈 무덤을 목격한 여자들을 본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후 보여주신 따스한 환대를 경험한 엠마오의 두 제자와 함께 여행한다. 갑자기 우리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과 구약의 예언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

오늘날 세상에는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소망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증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그들과 나누어야 하며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한 황폐함을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이르는 인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 질문

1. 당신이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한 여자들을 믿었겠는가? 왜 그런가? 왜 아닌가?
2. 당신이 복음을 나눌 때, 그 발표에서 부활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부활은 필수적인가? 설명하라.
3. 말씀 속의 예수님 - 죽음을 정복하신 분 - 은 당신이 믿음으로 매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일한 예수님인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4.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참고]

### 증인

증인은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한 사람의 어떤 부정 혹은 죄를 입증하는데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신명기 17:6-7; 19:15; 민수기 35:30). 때로는 무생물이 증거로서 사용되었다(여호수아 24:27).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명을 대표함으로써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었다(이사야 43:10-12; 44: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부여하였다 (눅 24:48).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가는 제자들은 또한 부활의 증인이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빈무덤에 대한 제일 첫번째 증인은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즉 여자들이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증거는 법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했다.<sup>3</sup> 그래서 처음에 유대 남자 제자들은 여자들을 믿지 않았다(24:10-11).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회적인 규칙과 편견이 적용되지 않는다(9:48)! 그래서 여자들과 남자 제자들은 성경과 함께 모두 부활에 대한 유용한 증인이었다.

## 적용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행 24:15)
-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고전 15:15)
- 우리는 쓸모 없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된다 (고전 15:17)
-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고전 15:17)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롬 6:11)
-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한다 (고전 15:57)
- 산 소망에 대하여 다시 살아났다 (벧전 1:3)
- 우리는 축복 받았고 거룩하다 (계 20:6)